



남포강산

4

주체104(2015)
루계 제308호 월간

세상에 부림없어라

차 례

빠르지 않게 깊은 정서를 가지고

작사 집 체
작곡 김 혁



1. 하늘은 푸르 - 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 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 - 는 내 조국 한없이 좋 네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 친 형제 세상에 부림없어 라

2.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뉘를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렵몰라라
(후렴)

3. 동무들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풍금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래퍼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후렴)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한평생 3

수 기

따뜻한 그 품은 우리 사는 집 6

절세의 위인에 대한 찬가 창작 7

포화속에 울린 종소리 8

선군은 민족의 생명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철창속에서 10

- 승리와 영광의 70년 -

조선로동당활동의 최고원칙 12

-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

무장에는 무장으로-항일전쟁의 선포 13

쫓으신 업적 그로록 빛나기에 14

인민이 믿고 사는 품 15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바치신 한생 16

승리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17

마식령전설의 주인공들 18

어머니들의 관심속에 있는 공장 22

김일성화는 이렇게 려여났다 24

더 좋게, 더 많이 26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28

사랑받는 창조집단 30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34

부부력기감독 35

민족의 향기

뽕밭에 떠올리는 생각 37



조국의 품에 안겨

바쁜 사람 38

고향소식

자부심을 더 깊이 가지게 하는 고장 40

편지

보고싶은 고모에게 42

인상기

뜨거운 지성이 수놓아진 축전장 43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43

고국방문



《정말 좋은 내 조국》 44

주체적힘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할 조국통일 46

반복화에 깃든 지성 47

력사인물

고국음악가 왕신악 48

백제의 정치구조 49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7) 50

작품 《잃어진 고려불화》를 놓고 52

수기

흑백을 전도하지 말라 53

짓밟히는 꿈, 암담한 미래 54

오늘도 그날의 함성은 살아있다 55

상식

선조들의 꽃정서 28

《담헌서》 29

건강에 좋은 묵츄꺼안기운동 36

조선속담 (고집) 48

유모아

들어갈수 없는 제 집 48



개학날에 대동문인민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1(1972년)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한평생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진다고 하지만 조국에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더 높이 올려퍼지고있는 노래가 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누구나 다 즐겨부르는 노래들중에는 1960년대초에 나온 《세상에 부럼없어라》도 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노래는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후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한평생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준공식장에 나오시여 궁전의 웅장화려한 모습을 이윽도록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교시하시였다.

궁전이 아주 멋있습니다. 설게도 잘하고 짓기도 잘 지었습니다. 설게가들이 형성도안을 《품》이라고 하였다는데 뜻깊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 우리 나라 어린이들



마음껏 뛰노는 어린이들

은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수령님의 기쁨이었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이께서 지니신 신념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일 큰 행복으로 여기시었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마다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도 보아주시었고 주체83(1994)년 6월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날에도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에 참가한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과 재일조선소년단대표단 성원들을 만나 축하해주시었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래서 인민들은 아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게, 제일 씩씩하게 키워 내세우기 위해 바치신 수령님의 로고가 가슴가득 안겨오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그토록 좋아하며 즐겨부르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수령님의 한평생은 후대들을 위한 한평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항일혈전의 나날 고 유수, 카툰, 오가자에서 무료교육의 종소리가 울리었고 일제를 쳐부시는 총소리와 함께 아동단학교에서는 랑랑한 글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적탄알이 비발치는 전장에서 수령님께서서는 아동단원들을 품에 안아 진대나무를 넘겨주시고 강물은 업어 건네어주시며 혁명의 역센 기둥감들로 키우시었다.

그이께서 아동단원들과 함께 걸으신 길, 정녕 그 길은 원수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멸적의 길이였고 후대들에게는 끝없는 행복과 다심한 은정을 부어주고 성장시켜주신 위대한 아버지 사랑의 길이였다.

항일의 나날 아동단학교에서 울리던 면비교육의 종소리는 해방후 건국의 마치소리보다 먼저 삼흥의 종소리로 온 나라에 진폭이 큰 메아리로 울리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하던 새 조국건설의 나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연필문제에 깃든 사연이며 탁아소, 유치원을 내올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 조선소년단창립에 대한 소식 등에 접하면서 인민들이 절감한 것은 수령님께서 지니신 후대관이였다.

미제와의 전쟁을 치르던 나날에도 최고사령부의 지붕아래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아이들이 자랐다. 부모없는 아이들때문에 마음쓰시며 최고사령부집무실에 부모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시었고 전사회적으로 전재고아들을 맡아 키울데 대한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무기와 탄약을 신고 전선으로 달리던 자동차들이 교과서와 교육기자재들을 신고 온 나라의 학교들을 찾아 달리도록 하신 이야기는 오늘도 조국해방전쟁사와 더불어 전해지고 있다.

허리띠를 조이던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막대한 자금이 대학과 각급 학교복구건설에 돌려지고 몸소 학교건설장들을 찾으시어 설계도면을 보아



무료교육의 혜택속에서

주시며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오늘도 인민은 잊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주체49(1960)년 여름 어느날 만경봉기슭의 순화강가에서 낚시질을 하던 한 사람이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게 되었다. 환히 웃으시며 그의 인사를 받아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그냥 낚시질을 하라고 이르시며 무슨 일을 하는가고 나직이 물으시었다. 난처한듯 바재이던 그는 학원에서 리발사로 일한다고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수고가 많겠다고,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며 말씀하시었다.

《나도 그 학생들의 머리를 일일이 쓰다듬어

주시 못하는데 동무는 그 귀여운 보배들의 머리를 다 만지며 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미래, 귀여운 보배들의 머리를 만지며 곱게 단장시켜주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학생들을 잘 보살펴주라고 당부하시었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년 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 것이라고 하시며 자신께서 저축하시었던 생활비도 학교건설에 깡그리 바치신 우리 수령님.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명언도 그이께서 내놓으시었으며 지덕체라는 유명한 말도 그이의 후대사랑의 력사속에 더욱 빛을 뿌리었다.

조국에서 살고있는 후대들뿐 아니라 해외에 살고있는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의 은정은 또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건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한 자금만은 꼭 보내주어야 한다시며 전후의 그 나날로부터 보내주신 장학금이 있어 일본땅 곳곳에 유치원으로부터 초, 중, 고급학교와 대학교에 이르는 민족교육기관들이 정연하게 세워지고 주체성과 민족성으로 일관된 자기의 교육강령을 받으며 애국위업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애국인재들이 수많이 자라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사랑의 력사속에 해마다 내 조국의 설날은 아이들과 함께 설맞이를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모습과 함께 밝

음악적재능을 활짝 꽃피우는 학생소년들





따뜻한 그 품은 우리 사는 집

저는 평양학생소년 궁전에서 과장사업을 하고있는 오충일입니다.

태양절이 가까와 올수록 저의 가슴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

움으로 끝없이 설레이고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가슴이 뜨거워만집니다.

42년전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에서 태어난 우리 세쌍둥이는 세상에 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몸무게는 2kg도 되지 못하여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물론 병원의사들도 꺼져가는 생명을 한숨과 눈물 속에 지켜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한 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이 다 잠든 깊은 밤에 무려 두차례나 장거리전화를 거시여 저희들의 소생에 필요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고 갖가지 식료품들과 옷가지며 담요 등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시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의학도 살릴

수 없던 저희들이 위대한 아버지의 따사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기적같이 소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아닙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저희들을 키운 탁아소에 자신의 명의로 감사도 보내주시고 김일성훈장을 수여해주시도록 하시였으며 보육일군들과 보육원들에게 로력영웅칭호와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저희들이 순간이라도 어머니없는 설움을 느끼세라 더욱 따뜻이 품어 안아주고 나이와 키까지 맞추어 손퐁금들을 보내주시여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만을 부르며 자라나도록 하여 주시였습니다.

모든것이 타고난 복인줄로만 알았던 철없던 그 시절에는 친부모도 줄수 없는 사려깊은 사랑과 은정의 깊이를 다 알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주체104(2015)년 1월 1일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 새해를 맞이한 원아들을 축복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은 그대로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으로

아왔고 온 세상이 다 아는 무료교육, 무상치료는 물론 어린이보육교양제도, 어린이건강관리체계, 세쌍둥이건강관리체계 등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속에 내 조국은 전진과 혁신의 힘찬 보폭을 내질었다.

오늘도 울려퍼지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복받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후대들만이라도 터칠수 있는 행복의 노래, 어머니-조선로동당에 대한 송가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후대들을 위한 헌신의 역사를 끝없이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손길아래 오늘도 따사롭게 이어지고있다.

원수님께서 한점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그리고 뜨겁게 진정을 터놓으신다.

원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 아이들의 눈망울에 차넘치는 리상은 더욱 아름답게 꽃피고 그 해빛이 있어 강성번영으로 향한 내 조국의 발걸음소리는 더욱 우렁차게 울려퍼진다.

조국의 미래이고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인민과 후대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에 담겨져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온 세상에 메아리치며 울려퍼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저의 가슴에 안겨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보동보동하고 흰해졌으며 씩씩해졌다고, 모두 푹푹하다고, 부모의 사랑을 제일 그리워하는 원아들이 밝게 웃으며 즐겁게 설을 쇠는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 마치도 제가 어릴적모습으로, 철없는 그 마음으로 안겨있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느라니 한생을 두고 추억하는 영광의 날이 더욱 새삼스럽게 되새겨지는것이였습니다.

주체72(1983)년 1월 1일 우리 세쌍둥이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있던 저희들은 아버지수령님께 축원의 꽃바구니를 드리고 삼가 설인사를 드리였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청진의 세쌍둥이들이 벌써 이렇게 자랐는가고, 세명이 다 남자니 대견하다고, 이애들이 어머니가 없어도 우리 당이 있고 사회주의체도가 있어 이렇게 자랐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습니다.

예로부터 자식은 어머니를 잃으면 사랑을 잃고 아버지를 잃으면 기둥을 잃는다고 하였습니 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성장한 우리 세쌍둥이지만 어머니-조선로동당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은 잠시도 저희들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으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떠받들리워 우리 세쌍둥이가 오늘은 이렇게 어엿한 일군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어찌 저희들뿐이겠습니까. 온 나라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품,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품은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이 안기여 세상만복을 다 누려가고있는 제일 따뜻한 우리의 집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선군으로 지켜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빛내여가는 길에 저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겠습니다.

평양학생소년궁전 과장 오충일

절세의 위인에 대한 찬가 창작

최근 재도이첼란드동포 리준식이 절세의 위인에 대한 여러건의 가사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그가 창작한 작품들은 《김정은장군의 노래》, 《김정은원수의 노래》, 《목숨바쳐 따르리》이다.

필자는 작품들에서 주체조선의 높은 기상이 하늘땅을 뒤덮고있는 오늘 자주의 위업을 총대로 지키며 새 세기를 선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영원한 거레의 존엄, 진보의 등대, 선군의 위인으로 노래하며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또한 백두산 정기어린 예지로 주체조선을 빛내이시고 선군으로 평화로운 사회주의를 지켜가시며 통일된 조국을 인류의 등대로, 문명의 락원으로 빛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민이 칭송하고 세계가 탄복한다고 흠모의 마음을 터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온 나라 아이들을 왕으로 보살피시는 원수님을 노래하면서 누구나 희망에 넘쳐 재능을 꽃피우며 만민이 평등한 사회에 넘치는 인민의 행복, 인민의 축복을 목숨바쳐 따를 의향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황금산 황금벌에 황금해 물고기산 복락의 노를 잡은 불굴의 천출명장 하루가 다른 눈부신 발전 꿈같은 선경아 발걸음 닿는 곳에 러져 솟는 감동감화 인민의 행복 인민의 축복 목숨바쳐 따르리》

그는 외세와 매국노를 몰아낼 선군령장을 모시여 백두산, 한나산이 통일조국을 환호한다고 하면서 민족의 행복, 조국의 축복을 목숨바쳐 따르리라고 노래하였다.

본사기자

포화속에 울린 종소리

평안남도 평성시 백송리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리용했던 김일성종합대학 교사가 있다. 현재 이곳은 백송혁명사적지로 불리우고 있다. 교사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으며 그이를 칭송하여 세운 현시비, 백송혁명사적관을 비롯하여 여러채의 건물들과 식당, 기숙사 등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이곳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사가 자리잡게 된 데는 뜻깊은 사연이 있다.

조선에서 미제가 일으킨 전쟁은 가장 가렬한 전쟁중의 하나였다. 미제는 도시와 농촌을 야수적으로 폭격하여 모든것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불살라버렸다. 당시 다니는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될수 없다는 신념을 간직한 조선인민은 누구나가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하였고 모든것을 그 승리를 위하여 다 바치였다. 세계는 조선전쟁에 초점을 모았으며 청소한 조선의 운명을 우려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전시에 도 나라의 교육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사실 전시조건에서 교육사업을 계속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일부 사람들은 고등

교육기관만은 다른 나라에 소개시킬 생각을 하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료해하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타일러주시고 주체적립장에서 교육사업을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시환경에 맞게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교육사업지도체계를 세워주시고 학교방공시설을 갖추는 문제, 파괴된 학교 건물을 복구하고 일부 학교들을 소개시키는 문제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에서 교육사업을 계속 진행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뿐만 아니라 교원, 학생대렬을 꾸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입대하여 전선에서 싸우고있던 군인들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세계전쟁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어 백송리의 산간벽촌에도 김일성종합대학이 자리잡게 되였으며 총을 펜으로 바꾸어 잡은 대학생들이 배움의 나래를 펼치게 되였다.

그러던 주체41(1952)년 4월 12일 저녁이였다. 이날 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교원들과 학자들의 전시교육사업을 일일이 지도해주시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까지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이렇게 휴식도 잊으시고 대학을 현지지도하신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이라는 력사적인 연설도 하시였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대학의 교원들은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학생들은 전후복구건설을 떠메고나갈 일군이 되자면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배움의 종소리를 울리고 또 울리였다.

오늘도 백송혁명사적지는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승리할 래일을 그려보시며 교육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내미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현명한 령도를 후세에 길이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선군은 민족의 생명

조선혁명의 개척과 승리적인 전진은 선군이야말로 민족의 생명이고 자주이며 존엄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 주체21(1932)년 4월 25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안도현 소사하의 토기점골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그때 그이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는 선군의 기치밑에 일제와의 전면적인 항전의 선포를 의미하였으며 선군혁명령도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포성이였다.

그때로부터 일제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일속》이라고 하면서 기관총과 대포, 비행기 등 각종 무장장비들을 다 동원하여 없애버리려하였지만 매번 녹아난것은 일제군경들이였다.

주체적인 사상과 전법, 전략전술로 항일유격대를 이끄신 김일성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는 마침내 일제를 쓸어버리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해방된 후에도 군건설을 앞세우면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이끄는 선군혁명령도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현대적인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기초우에서 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을 지킬 군대가 없어 침략자들에게 국토를 강탈당하고 인민이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민족의 수난사가 다시는 되풀이될수 없었다.

그이의 독창적이고 현명한 선군혁명령도밑에 청소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세계의 면전에서 보기 좋게 타승하였으며 수십년간에 걸치는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할수 있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선군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선군혁명령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일찌기 인민군대에 대한 현지지도로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심으로써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천만뜻밖의 민족의 대국상과 미제의 고립압살책동, 편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 등으로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도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모진 역경을 과감히 뚫고나가시며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였다.

선군은 민족의 생명이고 자주이고 존엄이다!

이 신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을 끝없이 이어가시였다. 오직 선군정치로서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기에 그이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전선길에 계시였다. 최전연의 판문점초소도 찾으시고 풍랑사나운 날바다길도 헤치시며 인민군대를 무적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다.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지닌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있는 조국의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선군혁명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이께서는 몇해전 새해 첫 아침 위대한 수령님들의 체취가 어려있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계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여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실 의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으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군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계신다.

출중한 위인적품모와 탁월한 령도력, 무비의 담력과 령군술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선군위업을 백송의 한길로 이끄시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도전은 물거품으로 되고있으며 조국은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철창속에서

《길림바람》이 만주의 여러 지역을 휩쓸게 되자 일제와 중국의 반동군벌은 점차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었다. 길림에서 세차게 일어난 청년학생운동과 중동철도사건, 남만청총대회사건으로 하여 우리에게 대한 소문이 여러곳에 퍼지게 되면서부터 적들은 길림의 공기를 소란스럽게 하는 장본인이 청년학생들이라는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뒤를 캐기 시작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하여 도처에 정탐군들을 박아넣고 조선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는 한편 중국의 반동군벌을 부추겨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였다. 길림의 형세는 매우 삼엄해졌으며 우리의 앞길에는 어려운 고비가 닥쳐오게 되었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길림시내에 들어와 박혀있던 종파분자들은 룡정, 반석, 돈화와 같은 곳으로 달아나고 독립운동자들은 국적을 중국국적으로 바꾸어가지고 관내로 들어가거나 왕청문과 같은 곳으로 피신해버리었다. 1929년 가을의 길림은 벌써 반일운동자들이 와글거리던 조선의 해외정치운동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이런 때 길림제5중학교 학생들이 독서회에서 쓸데없이 떠들어대것이 실머리가 되어 우리 동무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였다. 방금 왕청문에서 돌아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뛰어다니던 나도 반동군벌당국에 걸

려들었다. 5중학교의 학생들이 육문중학교의 공청조직도 다 붙었던것이다.

경찰들은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무지막지한 고문을 들이댔다. 그때까지 우리가 벌려온 투쟁내용과 길림시내에 거미줄처럼 늘어져있던 조직망을 들춰내고 그 배후세력을 알아내자는것이였다.

우리는 좌익서적을 읽었다는 것이외에 다른 말은 입밖에 내지 않기로 하였다. 학생이 책을 읽은것이 무슨 잘못이나, 우리는 책방에서 파는 책을 읽었다, 죄를 따지려면 책을 출판하고 팔도록 허가한 당국에 먼저 물어야 할것이 아니냐, 심문을 들이대는 형리들에게 이런 항변을 하면서 끝까지 뻔대었다.

내가 손가락비트는 고문을 당하고있던 어느날 화성의숙 숙장을 하던 최동오선생이 심문실 한쪽에 세워놓은 간막이뒤에서 나를 피뚱 내다보다가 사라졌다. 너무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여서 처음에는 혹시 무슨 착각이라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화성의숙시절의 숙장 최동오선생이 틀림없었다. 적들이 화성의숙시절의 스승까지 심문실에 데려온것을 보면 나의 뒤를 어지간히 깊이 캔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최동오선생의 출현은 나의 생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최동오선생은 중국말도 잘하고 외교사업에도 능하여 국민부의 외교위원장의 직책을 맡고있었다. 선생은 국민당 반동군벌당국과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주로 길림에 있으면서 청년학생들과도 일정하게 련계를 가지였다.

만일 그가 우리의 정체에 대하여 사실대로 반동군벌당국에 로출시키는 날에는 사건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려던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수 있었다. 더구나 중동철도사건때 우리가 쏘련을 옹호하여 투쟁한 전적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도저히 무사할수 없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촉과 조종하에 중국국민당정부와 봉계군벌은 1920년대말에 이르러 배신적인 반쏘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었다. 장개석정부는 광주인민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후 광주주재 쏘련령사를 총살하고 쏘련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반쏘는 제국주의렬강들에게 아첨하여 그 보호와 지지를 받아보려는 장개석의 주패장이였다.

군벌들의 입에서는 《적색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호가 자주 울려나왔다. 그들은 중국인민의 민족감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진상을 은폐하였으며 반쏘사상을 집요하게 고취하였다.

군벌들의 선전에 기만당한 대학생들과 청년인테리들까지도 《우랄산을 점령하고 바이

칼호를 차지하자!》, 《바이칼호에서 말물을 먹이자!》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폭언을 마구 해대면서 쏘련땅을 넘겨다보았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군벌은 반쏘도발의 첫 순서로 중동철도를 공격하였다. 중쏘량국은 협정에 따라 재산과 설비를 절반씩 차지하고 리사회라는 관리기구를 통하여 이 철도를 공동으로 경영하고있었다. 군벌은 무력을 동원하여 무선전신국과 관리국을 점령하고 철도를 완전히 탈취하였으며 쏘련측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었다. 중동철도를 장악한 다음에는 곧 국경을 넘어 세계 방향으로 쏘련을 침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쏘련군대와 중국반동군벌군대 사이에는 무장충돌이 일어났다.

그때 풍용대학과 동북대학의 일부 우익계학생들은 반동들의 사촉을 받아 무장까지 하고 쏘련을 반대하여나섰다.

우리는 국민당정부와 반동군벌의 반쏘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투쟁에 결기시키고 사회주의나라인 쏘련을 옹호하여나섰다.

각성되지 못한 중국의 일부 청년들은 우리를 중화민족의 리익을 《침해》하는자들을 돕는 나쁜 사람들과고 하면서 멀리하였다. 참으로 딱한 일이였다.

우리는 시내 여러곳에 군벌의 반쏘책동의 본질을 발가놓는 뼈라도 뿌리고 중국사람들속에 들어가 선전사업도 벌려 군벌군대가 중동철도를 탈취하고 쏘련을 침공한것은 10월혁명후 중국과 체결한 일체 불평등조약을 폐기하고 중국에 물심량면의 원

조를 준 쏘련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배신행위이며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한 밑천을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폭로하였다.

국민당반동들과 군벌들의 선전에 속아서 쏘련을 적대시하던 사람들도 우리의 선전을 듣고나서는 반쏘침공의 위험성과 본질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반대하는데로 태도와 립장을 바꾸었다.

우리는 중국의 진보적인 청년들과 함께 무장을 들고 쏘련을 공격하겠다고 날치는 풍용대학 학생들에게도 된타격을 주었다.

중동철도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진행한 투쟁은 쏘련을 정치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국제주의적투쟁이였다. 우리는 그때 지구상에 처음으로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싸우는것을 공산주의자들 앞에 부과된 성스러운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였다.

중동철도사건을 둘러싸고 우리가 진행한 투쟁을 통하여 중국인민은 군벌의 진면모를 똑똑히 파악할수 있게 되였으며 군벌의 배후에서 그들을 반쏘행동으로 끊임없이 부추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조종인민은 중동철도사건을 계기로 크게 각성되였다.

당시 국민당군벌은 쏘련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최동오선생이 왔다간 다음에도 심문자들은 나를 여전히 독서회사건의 주모자로만 취급하였다. 군벌당국은 최동오선생을 데려다가 나의 신분을 확인

하기도 하고 내가 쏘련과 련계가 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알아본것 같았다. 그러나 최동오선생이 나한테 해될 말은 하지 않은것 같았다.

우리는 얼마후 길림감옥으로 넘어갔다. 길림감옥은 간수가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사방을 감시할수 있게 동서남북으로 복도를 내고 그 복도의 량옆에 감방들이 붙어있는 십자형건물이였다.

내가 갇혀있던 감방은 북쪽 복도의 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 칸이였다. 북향이어서 일년내내 해빛이 들지 않아 곰팡이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겨울이면 벽에 성애가 하얗게 돌아 녹을 줄 몰랐다. 우리가 감옥으로 이송되였을 때는 가을이었는데 감방안이 겨울처럼 차다.

군벌당국은 죄수들을 다루는 데서 심한 민족적차별을 두었다. 간수들은 《조선놈》이니, 《조선망국노》니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무거운 쇠덩어리가 매달린 족쇄를 조선학생들의 발목에 채웠다.

군벌당국은 식사조건과 감옥안의 보잘것 없는 의료시설을 리용하는데서도 중국인정치범들과 차별을 두었다.

나는 옥중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의 투쟁무대라고 할수 있다. 감옥을 단순히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피동에 빠져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나 감옥을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비좁은 공간속에서도 혁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수 있는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로동당활동의 최고원칙

오늘 조선로동당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오직 당을 따라 한길만을 걸어온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조선로동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지금 조선로동당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도 바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상에 정당이 생겨난 때로부터 수많은 당들이 존재하였지만 조선로동당처럼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모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온 당을 력사는 일찌기 알지 못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 전과정에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철저히 복종시키였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전쟁승리만을 생각해야 했던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적부담에 의한 전 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또한 전후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자금과 자재를 살림집건설과 병원, 학교, 유치원, 탁아소건설 등에 아낌없이 돌리도록 하였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배울수 있게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련이어 주체 56(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주체 64(1975)년부터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또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시

책은 나라가 경제적난관을 겪던 1990년대에도 변함이 없었다.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토지답게 정리되고 자연흐름식물길들이 건설되었으며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였다. 그리고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거나 현대화되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목장과 양어장 등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사실은 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생겨난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전설들이다.

조선로동당은 오늘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다 유족하고 문명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룡라곱등어관, 연풍과학자휴양소, 창전거리,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모든것을 다한 사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것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에 기초하고있다.

이민위천은 수령님들의 좌우명이였다. 수령님들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 주시였다. 그리고 인민들의 소박한 생각과 의견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담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관을 자기 활동의 초석으로 삼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제일차적요구로 되고있다.

하기에 인민은 조선로동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성현

무장에는 무장으로-항일전쟁의 선포

조국해방(1945. 8. 15.) 70돐이 되는 올해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욱 잦아드는 곳이 있다. 평양에 있는 개선문이다.

참관자들은 개선문에 새겨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1925》, 《1945》라는 년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군 한다.

돌이켜보면 조국의 해방은 일찌기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나라찾는 싸움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선군, 이 부름을 되새기느라 면 지금으로부터 84년전 겨울 선군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안겨온다.

당시 정세는 그해 9월 일제가 도발한 만주사변으로 하여 급격히 변화되였다. 일제는 만주를 침공하면서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반동공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일제의 탄압에 격분한 조선인민은 적의 무력적인 탄압에 폭력적인 진출로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 20(1931)년 12월 16일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연길현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에서 그이께서는 모두다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떨쳐나설 때는 왔다고 하시면서 빈부와 귀천, 당파와 종교를 가리지 말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무장투쟁에 총동원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총있는 사람은 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여 전민족이 반일무장투쟁에 총결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민족을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총결기시킬데 대한 방침은 상비적무력에 의한 무장투쟁과 전인민적항쟁을 결합시켜 조국해방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힌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중요한 회의였다. 회의에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그 최고단계인 무장투쟁으로 이행시키려는 우리민족의 의지가 거듭 확인되고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구호밑에 총대로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선군의 기치밑에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미 그이께서는 주체 19(1930)년 6월말-7월초 카룬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여 독창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창시를 선포하시였다.

결국 카룬회의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그 최고단계인 무장투쟁으로 이행시키려는 조선민족의 의지가 확인되였다면 명월구회의에서는 그 의지가 거듭 확인되고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겨울명월구회의에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주체 21(1932)년 4월 25일 혁명적무장대오인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게 되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줄기찬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려 끝끝내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해방, 민족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방의 날이 있어 이 땅위에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피나게 되였고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조국이 일떠서게 되었다.

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개선문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일

쌓으신 업적 그토록 빛나기에

한번 정을 맺으면 생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정을 주고받는 마음이 변치 않는것은 인간의 고상한 미덕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정도 다를바 없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민족의 위대한 아버이 김정일장군님을 잃고 산천초목도 몸부림치던 2011년 12월, 조국과 인민은 뼈아픈 상실의 아픔을 안고 그이를 목놓아불렀다.

그이는 정녕 가지지 않으시였다고, 태양은 영원히 꺼질수 없다고 통절히 웨치는 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뜨거운 정이 피출처럼 지니어있었다.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비날론폭 포소식 아뢰면 또 오실가 하며 조국땅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인민들은 장군님께 기쁨드릴 소식안고 눈물속에 기다리고 기다리였다.

봄빛찬란한 주체101(2012)년 4월,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펼쳐지는 뜻깊은 시기에 태양의 그 빛을, 사무치는 그리움과 정을 그리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던것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시고 조선로동당과 조국을 이끌어오신 력사는 비범한 예지와 강철의 담력, 탁월한 령도력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내 나라, 내 조국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국가로 온 누리에 떨친 승리와 영광의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류레없이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복잡다단한 세계정치 정세속에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조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수천수만리 전선길을 주름잡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헌신의 세계속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몇해전 정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이라고, 인민군대만 강하면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울것이 없다, 정권은 무너지면 다시 세울수 있지만 군대가 무너지면 모든것이 끝장나게 된다, 이것은 꼭절 많은 국제사회주의운동력사가 보여주는 철의 진리라고 교시하시였다.

잊지 못할 선군의 추억들을 떠올리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는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우리나라의 령이란 령은 다 넘었고 산이란 산은 거의다 올라가보았다, 나의 한평생은 군인들을 위한 한평생이라고 말할수 있다라고 다시금 절절히 말씀하신 후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버지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선군의 한길을 역세게 걸어갈것이라고, 그 길에 자신의 인생의 락이 있고 가장 큰 행복이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진정 선군혁명령도의 상징 철령과 선군의 산악오성산의 칼벼랑길이며 위험천만한 판문점초소길과 파도가 기승을 부리는 초도에로의 배길을 비롯한 위대한 장군님 헤치고 헤치신 눈보라강행군길, 삼복철강행군길은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을 모르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력사의 강행군길이었다.

이민위천의 사상을 조선로동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작성의 기초로, 국가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신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근본원천이었다.

그이의 령도밑에 혁명적군인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강제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타올랐으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가 일어나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역경속에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시대를 펼쳐놓은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였다.

령도자와 맺은 정을 피출처럼 지니고 세세년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령마루에로 질풍쳐내달리는 조선의 앞길에는 무궁한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

본사기자 연 옥

인민이 믿고 사는 품

3년전 4월, 환희로 부푸는 가슴을 안고 주체 100년대의 분수령에 오른 조국과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한나라, 한민족의 장구한 력사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3년세월 조국과 인민은 그 무게와 폭과 깊이에 있어서 수십, 수백년과도 대비할수 없는 비상한 의미를 력사에 새기였다.

희세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을 령도하시는 그 기간에 보통의 정치가가 수년, 수십년을 이어가면서도 이룰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오늘도 인민의 마음속에는 뜨겁게 간직되어 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거행되던 광장주석단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첫 연설이...

부드러움과 젊음이 넘쳐나는 음성에 온 나라 인민이 아니, 온 세계가 귀를 기울이였다.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조선로동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려는것이 그이께서 언명하신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였다.

그이의 결심과 그 원대한 뜻이 현실로 꽃피는것을 인민은 지난 3년세월 시시각각 온몸으로 느끼였다.

그야말로 기적과 비약의 련속이였다.

민족의 대국상이 겨레의 가슴속에 가져다주었던 피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던 그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압살해보려고 때를 만난듯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온 나라에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 넘치고 조선로동당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로 돌려졌다.

천만군민의 운명을 한품에 맡아안고 세월의 눈비를 다 막아주며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안겨주는 어머니-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진실한 심장의 목소리가 어디서나 울려나왔다.

판문점과 장재도, 무도영웅방어대를 비롯한

최대열점지역들에서는 침략세력이 사회주의조건을 감히 넘겨다보며 어찌보려고 달려든다면 단숨에 요정내버릴 선군조선의 단호하고도 억센 기상이 내외에 시위되였다.

그리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자위의 제3차 지하핵시험 성공으로 공화국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였다.

삼복철강행군, 눈보라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창조와 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정치실력, 뜨거운 정과 불같은 헌신으로 인민의 모든 꿈을 꽃피워주시는 무한대한 사랑...

창전거리살림집들에 입사한 교육자가정, 로동자가정, 신혼부부가정을 방문하시어 사랑의 축배도 부어주시고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켜 행복의 요람들을 거둬 찾으시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음악회, 체육경기도 관람하시는 원수님의 육친의 정과 같은 사랑속에서 이 땅의 날과 달이 흘렀다.

그 나날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가 펼쳐져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룡라인민유원지,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수많은 창조물들이 짧은 기간에 련이어 일떠섰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들이 도처에 솟아났다.

그 모든것이 비껴있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세돌기 년륜은 력사의 기념비로 빛나고있다.

하기에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이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었던 비슈와나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운으로 된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어 사회주의조선은 승승장구할것이다.》

그렇다.

우리 인민모두가 하늘처럼 믿고 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련 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바치신 한생

만물이 화창한 봄날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어머니이신 강반석녀사께서 탄생하시어 성장하신 유서깊은 칠골혁명사적지를 찾았다.

면실목도리를 걸친 단정한 조선치마저고리차림에 《새날》신문을 쥐고 앉아계시는 녀사의 동상을 우러르는 우리에게는 남만원정을 떠나시는 자제분에게 하신 녀사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라를 찾겠다구 결심품구 나신 사람이 그렇게도 마음이 예리고 집걱정이 많아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르겠니. 너는 집안일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 계시는 삼촌을 생각하구 외삼촌을 생각해야 한다.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구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 ... 왜놈들이 나라를 강탈한지도 벌써 스물두해가 되어오는데 너두 조선의 사내라면 맘을 크게 먹구 걸음을 크게 떼야 할게 아니냐.》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대가를 모르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한다.

돌이켜볼수록 혁명가의 안해, 혁명가의 어머니로서 강반석녀사의 생애는 빼앗긴 나라와 겨레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녀성혁명가의 고귀한 한생이었다.

녀사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고 조선녀성운동의 시초를 빛나게 개척하시였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된 후 김형직선생님 맥으로 는 국내 각지와 멀리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떼없이 찾아왔다.

녀사께서는 그때마다 모든 성의를 다해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시였으며 선생님께서 비밀모임을 가지실 때에는 밖에서 망을 보시였고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통신을 보장하신 것을 비롯하여 어려운 일들을 맡아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그리고 녀성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여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평시에는 것처럼 성격이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한 녀사이시였지만 원쑤들앞에서는 기상이 도도하고 강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던 어느날 한 청년이 무기를 손질하다가 오발을 하여 녀사께서 다리를 상하게 되시였다. 그 청년

은 너무도 죄스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였다. 이 사실을 아신 녀사께서는 그를 앉혀놓고 그러면 못쓴다, 너희들이 아직 총이 서툴어서 그렇게 된것인데 그만한 일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엄하나 조용히 타이르시였다.

하지만 봉화리에서 김형직선생님을 체포해간 일제경찰들이 달려들어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자 《볼테면 보라!》고 자신의 손으로 옷가지들을 막내던지고 찢어내치면서 무서운 기상으로 맞서시였다.

항일의 기치아래 군중을 묶어세우시고 항일무장대오결성을 위한 수령님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우신 나날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지하활동을 벌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청원들과 함께 무송(중국)시가에서 적의 포위에 든 적이 있었다. 수령님의 부락을 받으신 녀사께서는 두자루의 권총을 소고기갈피속에 넣어 이고성문을 대담하게 통과하시였다.

녀사의 지혜와 용감성은 수령님께서 하시는 혁명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렬한 공감없이 감히 흉내도 낼수 없는 용기였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참된 사랑이었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유격대원들이 들고있는 총을 살펴보시며 정말 장하다고, 이제는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됐다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녀사이시였다.

녀사의 모습을 우러르며 항일유격대원들이 이 나라 어머니들의 념원이 무엇인가를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 그 념원을 안고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에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총대를 어깨에 틀어쥐고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를 바라신 강반석녀사의 그 념원대로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은 성취되었으며 오늘 조국은 천만의 총대가 숲을 이루고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

그러한 조국을 건드릴 힘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유서깊은 칠골혁명사적지를 떠났다.

본사기자 윤영일

승리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지난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공동구호를 발표하였다.

공동구호가 발표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벽두부터 양양된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세가 더 고조되고 모든 부문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 세차게 일으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를 가질수 있게 되었다.

공동구호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은 모든 조선로동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전사, 제자답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투쟁을 벌려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자는 것이다.

조선로동당과 조국의 70년력사는 백두산절세 위인들의 령도밑에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온 위대한 승리의 력사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장구한 기간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공동구호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어나가려는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길이 빛내이자!》와 같은 구호들은 오늘도 래일도 세대를 이어가며 높이 들고나가야 할 신념과 량심, 혁명적도덕의리의 기치이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천만군민의 충정의 일편단심은 절대불변이다.

공동구호는 현시기 조국이 중시하는 정책적문제들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구호에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당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 과학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전략적과업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고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부문별과업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명백히 밝혀져있다. 뿐만 아니라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할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거점으로 로동계급의 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칠데 대한 문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평양시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문제와 같이 조국이 새롭게 내놓고 중시하는 정책적과업들도 제시되어있다.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고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진로를 명시한 바로 여기에 공동구호의 생명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는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천만군민이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이 거세찬 진군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고 지적되어있다.

지금 조국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제일가는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높이 발휘할 열의밑에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결기해나섰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같이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전형단위들처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고 옹위하는 투쟁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나아가고있는 조국의 천만군민은 승리의 경축광장에 영예롭게 들어설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 또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마식령 전설의 주인공들



산세가 험하기로 알려진 마식령에 멧쟁이스키장과 호텔이 일떠서 새로운 마식령전설이 펼쳐지고있다.

말그대로 마식령스키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대화봉을 움썹움썹 흔들어놓는듯싶다. 모두들 빨강고 노랑고 파란 스키복을 입고 스키를 배우느라 휘청거리고 제법 스키주로를 지쳐내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썰매타기에 신바람이 나하고...

우리는 주로를 지쳐내려와 무등 좋아 어쩔줄 몰라하는 한 녀성을 만났다. 뒤따라 내려온 사람들이며 스키교원에게 한바탕 체험담을 이야기하고있는 그를 배워준 스키교원이 먼저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한마디로 그의 욕심이 보통이 아닌데 매년 스키장에 먼저 들어서서는 스키교원의 지도를 독차지하더니 이제는 아예 선수연한다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 녀성은 평양시 서성구역편의봉사사업소에서 일하는 송동숙이였다.

그는 자기 심정을 이렇게 말하였다.

《텔레비존에서나 보고 말로만 들어오던 마식령스키장이었는데 이렇게 와보니 정말 꿈만 같다. 아들이 떠밀어왔다. 먼저 왔다 간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땐 신비한 전설처럼 느껴졌다. 태어나 처음으로 스키복을 입고 안전모와 안경까지 쓰고보니 마음은 범잡은 포수마냥 즐겁기도 하고 우쭐해졌지만 정작 스키신발을 신고 스키장에 들어서니 한편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성급히 스키를 타려다 궁둥방아를 찧고 사람들을 한바탕 웃기기도 하였다. 후에 스키교원이 익혀주는 자세며 동작 하나하나를 숙련하면서 나는 스키타기를 조금씩 하게 되였다. 그때부터 나는 아예 스키교원에게 딱 붙어 스키를 배웠다. 이제는 초급주로서서의 스키타기는 어딘가 싱겁게 여겨진다. 그것은 초급주로서는 로인들과 어린이들이 스키를 타고있고 더구나 나와 함께 스키를 배운 젊은이들은 모두 중급주로서 스키를 타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슬그머니 중급주로서 자리를 옮기었는데 정작 끌림식삭도를 타고 주로의 정점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생각과는 달리 눈앞이 아찔하였다. 혹시 동작이 서툴어 넘어져 다치지 않을까 하는 위구심도 없지 않았지만 보호벽들과 곳곳의 의로봉사기지들이 눈앞에 어려와 점차 마음이 든든해졌다. 저 멀리 두렵게만 바라보이던 종착점을

단 몇분동안에 지쳐내리니 마음은 마냥 즐거웠고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러면서 그는 스키타기에 정신이 없다보니 돌아갈 날이 언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좀처럼 마식령스키장을 떠나고싶지 않다는것이였다.

마식령의 신비경이 그로 하여금 직장가정,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잊어버리게 한 셈이였다. 그는 우리에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되돌아갈 마음속 결심을 굳게 다지고 와야 한다는 말로 자기 이야기를 끝맺었다.

그와 헤어진 후 우리가 만나게 된 녀성은 송동숙녀성과는 대조적이였다. 한것은 동숙녀성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에는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데 이 녀성은 기한전에 가려고 서두르고있는것이였다.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남편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특류영예군인이다. 한시도 남편의 걸을 떠나면 안되는 몸이지만 남편이 떠미는 바람에 이곳에 왔다.

남편이 자기 걱정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마식령스키장에서의 생활을 실지 체험하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어찌나 떠미는지...

그래 갑자르던 마음을 다잡고 이곳에 와서 스키랑 타면서 환희에 잠기게 되니 한가지 가슴에 맺히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불편한 몸으로 여기에 와서 스키를 탈수 없는 남편이지만 왜 함께



와서 이 황홀한 구경이라도 시키지 못했을가 하는 생각이였다. 전화연계를 가질 때마다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정말이지 미안하기 그지없다. 이제 집에 빨리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과 함께 마식령에 다시 와 호텔에도 함께 들고 남편을 썰매에라도 태워 스키장의 모든 주로를 다 돌면서 평생의 한을 남기지 않겠다.》

녀성의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뜨거웠다

그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성남동 34인민반에서 사는 류현녀성이였다.

우리는 휴식일을 계기로 가족과 함께 마식령스키장으로 온 강원도 원산시에서 사는 김성배로인

의 이야기도 들을수 있었다.

《가족이 한데 모여 휴식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듯 모두 마식령스키장으로 가고 하는것이였다. 집사람이 더 극성을 부리며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났다. 체육에는 거의나 담을 쌓다싶이 하던 집사람이 한번 마식령맛을 보더니 아예 판사람이 된듯싶다. 이렇게 훌륭한 스키장과 호텔의 모든것을 마음껏 향유하며 환희에 잠기니 마음은 그대로 청춘시절이다. 내 나이 60이 넘었지만 집사람과 손녀와 나란히 스키를 타고 경기를 하였다.

즐거움과 기쁨에 잠겨있다보니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라는 <세월이야 가보라

지>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온다.

정말 이렇듯 훌륭하고 황홀한 호텔이며 스키장을 우리 같은 평범한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렇듯 험준한 산중에 피와 땀을 바쳐 희한하고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인민군군인들에게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담고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

사람들의 희열과 랑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식령전설은 앞으로도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 끝없이 펼쳐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국철



송동숙(왼쪽), 류현(오른쪽)





콩우유생산공정



애기젓가루생산공정

어머니들의 관심속에 있는 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다시마가루와 애기젓가루, 영양암가루를 비롯한 어린이식료품들은 조국의 어머니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들이다.

어머니들의 관심속에 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평양시 평천구역에 자리잡고있다.

공장은 해마다 수십종의 어린이식료품들을 생산하고 시안의 탁아소, 유치원과 학교들에 정상적으로 콩우유와 콩산유를 생산하여 보내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어머니들의 관심속에 있다.

공장구내에 들어서면 어린이식료품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가 한

눈에 안겨온다.

회색, 연회색타일들을 조화롭게 붙여 외부를 장식한 어린이들의 생산건물들로 이루어진 공장구내에는 전적으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 《왕차》로 불리우며 달리는 콩우유차들이 줄지어 서있다.

부원 전철주는 말하였다. 《우리 공장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의해 주체66(1977)년 10월 수도의 중심에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모두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식료품들로서 어머니들 특히 애기어머니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콩우유와 콩산유를 마시며 좋아하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보며

마음겨워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때면 주체90(2001)년 7월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공장을 찾으시여 콩사이로까지 돌아보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상을 잊을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떨구지 않고 먹이시려는 수령님들의 사랑속에 공장은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단 하루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으며 거리를 달리는 콩우유차들을 어머니들은 기쁨속에 바라보았다.

지금 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시며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하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더 많은 새 제품들과 질 좋은 제품들이 생산되어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줄것이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생산된 여러 가지 제품들



김일성화는 이렇게 태여났다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이며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자주시대의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어느덧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나고 조국민민의 충정으로 만발하는 김일성화는 오늘 만사람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꽃은 예로부터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와 축원의 상징으로 되어왔다. 하지만 세계화초사의 이 관례를 벗어나 위인의 존함을 꽃의 이름으로 명명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인도네시아 초대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였다. 당시 그는 빨럭불가담운동창시자의 한 사람으로서 영향력있고 자존심이 강하였지만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애타게 따라배울 본보기를 찾고있었다. 그러던 그는 어느 기회에 세계혁명의 원로로 공인되고 의사표현을 잘하지 않는 쓰딸린이

김일성대원수님을 걸출한 령도자로, 위대한 영웅으로 높이 존대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보다 놀라운것은 수령님께서 정규무력으로 된지 2년밖에 안되는 군대를 가지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타승하였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부터 그는 수령님을 세계적인 위인으로 존경하게 되었으며 조선의 현실을 자기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삼게 되었다.

그후부터 수카르노의 초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로 향하였다. 어떻게 하나 수령님을 자기 나라에 모시고 조언을 받을것을 요청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웰남의 호지명주석의 평양방문소식이 그를 깨우쳐주었다. 《김일성동지는 과시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수령이시다.》라고 한 호지명주석의 말은 그를 흥분시켰으며 수령님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었다.

평양에서 수령님과 상봉한 수카르노는 정치, 경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받게 되었으며 그 나날에 그에게 완전히 매혹되게 되었다. 평양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수카르노는 수령님께서 자기 나라를 방문하여주실것을 거듭 요청하는 한편 그이를 모실 준비를 직접 맡아안고 진행해나갔다. 전국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보급하게 하였으며 행사조직 등으로 분망한 나날을 보내였다. 그

중에서 그가 대단히 중시한것은 수령님께 드릴 선물을 마련하는 것이였다. 당시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었지만 어느 하나도 수카르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보고르식물원에서 새로 육종하여 피워낸 진귀한 꽃을 보게 되었다. 꽃은 볼수록 명화중의 명화였다. 수카르노는 이 꽃이야말로 절세위인의 존함으로 불리울수 있는 꽃이라고 기뻐하면서 그 관리를 최상으로 하여 자기 나라에 오시는 수령님께 보여드리고 그이의 존함으로 명명되도록 하자고 지시하였다. 그는 꽃은 꽃망울도 아니고 한물이 진 꽃도 아닌 만발하는것이여야 하고 색깔 또한 꽃잎과 꽃받침잎이 진분홍보라색이어야 하며 꽃받침잎끝은 흰색을 띠어야 할뿐 아니라 피는 시기도 수령님의 탄생일로 되어야 한다는 등 꽃색갈과 피는 시기까지 정해주며 원예전문가들이 정성을 다하도록 하였다. 사실 그때 꽃을 4월에 피게 한다는것은 매우 힘든 일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보고르식물원 원장을 비롯한 이곳 원예전문가들은 꽃을

피워가는데 자기들의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였다.

드디어 주체54(1965)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하시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성대한 행사로 맞이하고 모신 수령님을 수카르노 대통령은 어느날 보고르식물원으로 안내해드리였다. 어느 한 전시대에 이르렀을 때 대통령은 진귀한 꽃을 보여드리며 수령님께 이 꽃이 어떤가를 문의하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꽃잎을 어루만지시며 한동안 꽃을 새겨보시다가 꽃이 참 아름답다고 하시였다.

이날 수카르노는 이미 결심하고있던 마음속 진정을 수령님께 터놓았다.

《존경하는 김일성수상님, 수상님의 사상은 위대하여 세계를 움직이시기에 수상님은 세계를 가지고계시는것과 같습니다. 수상님이시야말로 자주시대

불멸의 꽃에 매혹된 해외동포들



김일성화육종가 씨. 엘 분트

김일성화는 오늘 우리 조국은 물론하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 세계 그 어디에서나 활짝 피어나 위인칭송의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절세위인의 존함과 더불어 세기에 세기를 이어 불멸하는 김일성화에 대해 10년 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로작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불멸의 꽃이다》에서 김일성화는

보고르식물원과 사적표식비



를 밝히시는 태양이시며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진귀한 꽃에 수상님의 존함을 모셔 김일성화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식물원원장도 더없이 기뻐하며 수령님께 수락해 주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렸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겸허하게 사양하시였다.

그때 수카르노는 수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자기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실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장군님께서 보고드리였지만 수령님께서서는 굳이 사양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자기는 이번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꽃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자고 한것이니 수락해달라는 청을 또다시 해왔다고 말씀을 올리였다.

장군님의 말씀을 이윽도록 듣고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인민들의 소원이 정 그렇다면 우리 인민들에 대한 찬양의 표시로 받아들일수 있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참으로 김일성화의 탄생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매혹과 흠모, 신뢰의 다함없는 표시였고 아름답고 진귀한 꽃에 위인의 존함을 모시고싶어하는 시대와 인류의 지향의 반영이였으며 그이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칭송의 찬가였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국장 리병과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더 좋게, 더 많이

새 학년도를 앞둔 요즘 소학교 학생들과 그 부모들속에서 《첫 의정》상표를 붙인 수지연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있다.

빨간색, 노란색 등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수지연필들은 든든하고 종이에 잘 써지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좋은 평을 받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수지연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평양 수지연필공장을 찾았다.

공장일군 리영철은 말하였다.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관철 그리고 당(조선로동당)창건과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관철에 펼쳐나선 공장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이 자 제품의 질보장이며 생산장성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최신 과학기술을 생산에 적극 도입해 나가고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리를 생산자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인데서 찾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가고있다.

이를 위해 매주 한번씩 기술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종업원들이 생산공정의 원리를 깊이 인식하며 기대들에 더욱 정통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공장안에 품질관리체계를 세우며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개선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사출기들을 CNC화한데 기초하여

종업원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종업원들의 창의고안을 비롯한 기술혁신안들의 생산도입 등은 제품의 질을 한계단 더 높이게 하고있다.

결과 생산원가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새 제품을 개발할수 있는 좋은 기술혁신안들이 나오고있다.

사출직장의 생산자들은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새로운 형태를 제작하여 심축의 질을 더욱 높였다.

그런가 하면 가공직장에서는 용수토시형태를 새로 제작하여 금속으로 만들던 수지연필의 물개와 토시를 수지로 생산할수 있게 생산공정을 개조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자금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립직장과 심직장에서도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다양한 색깔의 수지연필과 색수지연필, 원주필, 중성필 등은 학생들과 사용자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공장에서는 앞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도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원칙에서 필기 도구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제품 완성

글 본사기자 변룡진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생산된 제품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3대의 풍력발전기날개들을 앞세우고 그뒤에 틀지게 들어앉아있는 새 건물, 이것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고있다.

더우기 지난해 10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연구소에 모시였던 이곳 연구사들에게는 그 영광이 더 큰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고있다.

태양, 풍력, 생물질에너지 등 근 20개에 달하는 연구실들 그 어디에서나 연구사업에 자기의 노력과 정열을 바쳐가는 연구사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부소장 김강일은 말하였다.
《우리 연구소가 창립된것은 불과 1년밖에 안된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우리는 10kW풍력발전

기수지날개를 설계 및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원추형버저콘로, 평판열관식태양열물가열기 등 여러가지 제품을 만드는 연구성과들을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안은 우리는 지금 풍력발전기와 태양빛전지를 결합한 발전체계를 개발하여 여러 섬과 바다가지역들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령에너지건축기술발전계획, 룩색건축기술발전계획, 태양열을 리용하는 열 및 랑생산기술발전계획, 폐수처리문제, 지열랭난방을 위한 지열설비국산화 실현을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있다.

자기들이 내세운 목표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그들의 열의는 년초부터 많은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풍력기계연구실의 연구사들은 고심하던 연구사업을 결속하여 외전형원통식영구자석발전기를 만들어냈다. 구조와 제작공정이 간단하며 신뢰성이 높은 발전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문은 날날이 늘어나고있다.

지열에너지종합연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구실에서는 지열뿔프에 의한 건물의 랑난방체계를 개발완성하였다.

지열난방체계연구실 실장 리성수는 말하였다.

《지하수리용에서 수증뿔프를 제작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기어이 우리의 힘으로 열반응뿔프와 수증뿔프를 제작할 열의에 넘쳐있다.》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부단히 앞으로만 나아가고있는 이곳 연구소 연구사들의 모습은 과학연구성과전시장에 있는 《자연에너지기과학발전의 꿈과 리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세운 목표들에 다 깃들어있다.

남들이 걸어온 길을 주름잡아비약하지는것이 그들의 꿈이고 리상이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담헌서》는 18세기 후반기의 실학자 홍대용이 쓴 책이다.

홍대용(자는 덕보, 호는 담헌, 1731년-1783년)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량반가문출신으로서 자신도 영천군수 등을 지냈다.

그는 박식한 학자로서 특히 자연과학부문에 관심이 깊었으며 수학과 천문학을 많이 연구하였다.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이 책은 1939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담헌서》는 14권으로 되어있는데 내집과 외집으로 크게 나누어져있다.

내집에는 유교경전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기록한 의견들, 중국의 력사적인물들에 대한 평론, 일기, 편지, 서문들이 있으며 끝부분에는 유명한 《림하경륜》과 《의산문답》이 들어있다.

외집에는 홍대용이 1776년 삼촌의 사절을 따라 어느 한 나라에 갔을 때 그곳 학자들과 학술적문제들을 글로 써서 토론한 내용을 담은 《항진척독》, 《간정동필담》 그리고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쓴 수학저서 《주해수용》, 중국기행문인 《연기》가 수록되어있다.

《담헌서》에서 특히 가치있는 저작은 그의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과 자연과학사상을 집중적으로 담고있는 《의산문답》, 《림하경륜》, 《주해수용》이다.

《의산문답》은 주자성리학을 대표하는 《허다》와 저자 자신의 사상을 대표하는 《실용》과의 대화형식을 취하면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전 반적견해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우주의 형성발전문제를 고찰하면서 세계의 시원을 《우주공간에 충만》되어있으며 《시초도 종말도 없는 기》로 보는 기일원론적유물론사상을 제기하였다. 또한 그는 《지구란 물과 흙의 질로 형성되었는데 그 형태가 등

글고 정지함이 없이 회전하면서 허공에 떠있으므로 모든 물체가 그 표면에 정착할수 있는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구설,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우주의 시공간적무한성과 함께 다우주성을 주장하였으며 지구의 중심문제와 관련하여 종래 유학자들이 중국을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를 변방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하여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있는 이상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러하며 어떠한 측면이란 존재하지 않고 어디나 다 지구의 중심이다.》라고 타격을 주었다. 《의산문답》에는 이밖에도 천문, 기상현상에 대한 비교적 과학적인 견해들이 담겨져있다.

《림하경륜》에는 홍대용의 사회정치적견해가 담겨져있다. 그는 여기에서 지주에 의한 사적토지소유를 반대하고 공전제원칙에서 균전(봉건사회에서 토지소유를 고르게 한다는 제도)을 주장하였으며 아무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고 놀고먹는 량반을 도태할데 대한 문제, 18살이상의 청소년들을 교육하되 우수한 사람은 대학에까지 올려보내어 공부시키며 인재분위로 관리를 등용할데 대한 문제, 병농일치의 원칙에서 대군을 편성하고 봉건제도를 일련의 《개혁》으로 보강해보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것은 당시 부패타락한 반동적량반계층을 반대하는데서 진보적의의를 가지였다.

《주해수용》은 산수, 기하, 천문 관측의 추산법 등에 대한 저술로서 우리 나라의 수학발전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총체적으로 《담헌서》에는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과 자연과학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내용들이 담겨져있으나 당시 통치사상으로 되어있던 주자성리학적견해들도 섞여있다.

《담헌서》는 18세기 후반기의 실학자 홍대용이 쓴 책이다. 홍대용(자는 덕보, 호는 담헌, 1731년-1783년)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량반가문출신으로서 자신도 영천군수 등을 지냈다. 그는 박식한 학자로서 특히 자연과학부문에 관심이 깊었으며 수학과 천문학을 많이 연구하였다.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이 책은 1939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담헌서》는 14권으로 되어있는데 내집과 외집으로 크게 나누어져있다. 내집에는 유교경전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기록한 의견들, 중국의 력사적인물들에 대한 평론, 일기, 편지, 서문들이 있으며 끝부분에는 유명한 《림하경륜》과 《의산문답》이 들어있다. 외집에는 홍대용이 1776년 삼촌의 사절을 따라 어느 한 나라에 갔을 때 그곳 학자들과 학술적문제들을 글로 써서 토론한 내용을 담은 《항진척독》, 《간정동필담》 그리고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쓴 수학저서 《주해수용》, 중국기행문인 《연기》가 수록되어있다. 《담헌서》에서 특히 가치있는 저작은 그의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과 자연과학사상을 집중적으로 담고있는 《의산문답》, 《림하경륜》, 《주해수용》이다. 《의산문답》은 주자성리학을 대표하는 《허다》와 저자 자신의 사상을 대표하는 《실용》과의 대화형식을 취하면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전 반적견해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우주의 형성발전문제를 고찰하면서 세계의 시원을 《우주공간에 충만》되어있으며 《시초도 종말도 없는 기》로 보는 기일원론적유물론사상을 제기하였다. 또한 그는 《지구란 물과 흙의 질로 형성되었는데 그 형태가 등

《림하경륜》에는 홍대용의 사회정치적견해가 담겨져있다. 그는 여기에서 지주에 의한 사적토지소유를 반대하고 공전제원칙에서 균전(봉건사회에서 토지소유를 고르게 한다는 제도)을 주장하였으며 아무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고 놀고먹는 량반을 도태할데 대한 문제, 18살이상의 청소년들을 교육하되 우수한 사람은 대학에까지 올려보내어 공부시키며 인재분위로 관리를 등용할데 대한 문제, 병농일치의 원칙에서 대군을 편성하고 봉건제도를 일련의 《개혁》으로 보강해보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것은 당시 부패타락한 반동적량반계층을 반대하는데서 진보적의의를 가지였다. 《주해수용》은 산수, 기하, 천문 관측의 추산법 등에 대한 저술로서 우리 나라의 수학발전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총체적으로 《담헌서》에는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과 자연과학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내용들이 담겨져있으나 당시 통치사상으로 되어있던 주자성리학적견해들도 섞여있다.

《주해수용》은 산수, 기하, 천문 관측의 추산법 등에 대한 저술로서 우리 나라의 수학발전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총체적으로 《담헌서》에는 철학 및 사회정치사상과 자연과학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내용들이 담겨져있으나 당시 통치사상으로 되어있던 주자성리학적견해들도 섞여있다.

《주해수용》은 산수, 기하, 천문 관측의 추산법 등에 대한 저술로서 우리 나라의 수학발전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꽃을 형상한 청자기들과 백자기 등 공예품들도 많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려시기의 청자꽃병들에는 국화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꽃무늬들이 아름답게 부각되어있다.

이밖에도 선조들은 사랑이나 존경의 표시로 꽃을 꺾어주었다.



태양열과 풍력혼성체계에 대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상식

선조들의 꽃정서

아름답고 고상한것의 상징인 꽃은 사람들의 정서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의 화원속에서 살며 꽃을 널리 피워온 조선민족은 독자적인 꽃문화를 창조하였다. 선조들은 집뜰안에 꽃밭을 조성하고 계절에 따라 갖가지 꽃을 심고 정

성껏 가꾸어왔다. 녀성들은 봉선화꽃을 짓뭉어 손톱에 물을 들이기도 하였다.

조선민족에게는 꽃과 관련된 전설이 많다.

선조들은 자식들의 이름도 꽃분이, 국화 등 꽃과 관련시켜 짓기도 하였다.

꽃을 사랑하여온 조선민족은 꽃의 상징적의미를 귀중히 여기였다. 집단이나 가족들끼리 기쁨을 즐길 때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그 집에 꽃이 피었다.》고 하였으며 젊음과 아름다움을 두고 《꽃같은 시절》이라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과거에 장원

급제한 사람이 머리에 《어사화》(장원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하사한 종이꽃)를 꽂고 3일동안 가마에 앉아 자랑스럽게 마을을 돌아다녔다.

선조들은 꽃을 형상한 미술작품, 문예작품들도 많이 창작하였다. 꽃과 관련한 이야기로는 《수로부인》설화가 유명하다.

꽃을 형상한 청자기들과 백자기 등 공예품들도 많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려시기의 청자꽃병들에는 국화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꽃무늬들이 아름답게 부각되어있다. 이밖에도 선조들은 사랑이나 존경의 표시로 꽃을 꺾어주었다.

사랑받는 창조집단



3D작품에 대한 형상 토론을 진행한다.

3D원도창작을 하고있는 원도미술가들

만화영화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떼어놓을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린시절을 거친 어른들도 만화영화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있다.

그런 만화영화를 위해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 조선4. 26만화영화촬영소의 창조집단이다. 촬영소는 주체46(1957)년 9월에 창립되어 첫 만화영화 《금도끼와 쇠도끼》로부터 오늘까지 《놀고 먹던 꿀꿀이》, 《나비와 수닭》, 《두 장수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만화영화를 많이 만들어내어 어린이들을 비롯한 학생소년들의 교육교양과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여왔다.



《참외를 굴린 개미》와 《날개달린 룡마》 등 만화영화들이 국제적인 축전들에서 특별상과 해불금상을 받은 촬영소에서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와 주문 및 합작영화들도 만들고있다.

지난 시기 《소년장수》, 《령리한 너구리》, 《다람이와 고슴도치》 등 촬영소에서 창작한 만화영화들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기도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지금 촬영소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 인민의 감정정서에 맞는 여러가지 주제와 형식의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창작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시대적명작들을 내놓기 위한 창조열풍이 문학창작단과 14개

창작단 그 어디서나 일고있다.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각 창작단성원들의 창작열의에 의하여 빠른 속도로 완성되어가고있는 속에 《소년장수》의 연속편들이 완성되어가고있다.

제1창작단의 연출가 윤영길을 비롯한 연출가들은 작품에 그려진 인물들의 성격적특성과 그 개성적면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형상에서 해결하여야 할 인물의 행동과제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기초하여 주인공을 작품의 중심에 세우고 모든 인물들을 그의 행동선에 빈틈없이 맞물려놓도록 구체적인 형상지도를 짜고들고있다.

연출가들의 의도가 화면에 정확히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 책임미술가, 원도미술가, 촬영가들도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

쳐나가고있다. 이들은 력사물주제, 현실물주제의 만화영화들을 시대감이 안겨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하는가, 매 장면들을 기쁨진 화면으로 형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생활의 논리에 기초하여 매 화면들과 대사, 효과 등을 빈틈없이 맞물리게 하려면 편집을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등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심중히 토론하고 최상의 방안을 선택하여 창작하고있다.

촬영가들은 연출대본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언제나 생활의 본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돌리고 그것을 인상깊고 재미나게 그려내는데 모를 박고있다. 미술가들인 김준일, 강영일,

화술배우들의 대사형상





현지습작으로 실기를 높여가는 창작가들

완성된 화면들에 대한 합평회



리영일은 등장인물들의 개성적 특성이 의상과 소도구의 여러 측면에서 진실하게 나타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잊을수 없는 깊은 감명을 주고 그들의 생활에서 친근한 길동무로 되는 인물형상을 창조하기 위해 화술배우들도 자기들의 대사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만화영화 《다람이와 고슴도치》에서 물망초와 외귀팔이 대사를 맡아 수행한 림복희, 리은주화술배우들은 대사 한마디를 녹음해도 동심에 맞게, 판중이 감흥을 얻을수 있게 실지 생활에서 보는것처럼 생동하고 진실한 형상창조에 힘을 넣고있다.

리룡, 동윤미를 비롯한 신인화술배우들도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정황, 그 계기에서 할수 있는 독특한 대사형상을 찾아내어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창조집단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로라스케트명수》 등 다



현실체험을 통해 기량을 쌓아가는 화술배우들

양한 주제의 만화영화들이 창작 완성되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있다.

촬영소일군인 김효준은 말하였다.

《지금 우리 창작가, 예술인

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불꽃튀는 창작전투를 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관중에게

기쁨과 즐거움, 교훈을 주는 재미있는 만화영화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어린이들속에서 인기를 끄는 만화영화들의 일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 보건성 국장 김경철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지금 조국인민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가고있습니다.

김경철: 보건일군인 저자신도 늘 느끼고있는바이지만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우리 사회에서 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나날이 꽃피어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간이 사랑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는것처럼 보건은 정성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정성은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꽃피어나고있는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이야기를 짧자면 끝이 없습니다.

화상당한 처녀의 본래의 얼굴을 되찾아주기 위해 9년동안이나 정성을 기울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미용외과 과장 림현단과 같은 의료일군들속에서 발휘되는 감동깊은 화폭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할수도, 흉내낼수도 없습니다.

기자: 돌이켜보면 온갖 질병을 모르고 무병장

수하려는 인민의 념원은 세기를 이어왔습니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병을 고치는 보건의제도가 미제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가렬한 전시기환에서 마련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 놓고 보아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말로 가장 인민적인 보건의제도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김경철: 옳은 말입니다. 조국에서는 환자들이 의사들을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의사가 평범한 주민들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어촌과 산간벽지할것없이 인민들이 사는 모든 곳마다에 치료설비들을 그뿐히 갖춘 보건의기관과 능력있는 보건일군들이 있고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세워져있으며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적으로 돌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병이 나기 전에 예방치료를 받으며 농촌마을의 진료소로부터 중앙의 큰 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건의기관에서의 외래 및 입원치료 그자체가 무상인것은 물론이

중앙과 지방을 이어주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확립되었다.



고 료양치료를 위하여 오가는 려비까지도 국가에서 보장받고있습니다. 특히 영예군인이거나 장애자들에 대해서는 그 혜택이 더욱 큼니다.

기자: 더우기 온 나라에 수립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보건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해나가게 한다고 봅니다.

김경철: 그렇습니다. 평양산원과 도산원들사이, 옥류아동병원과 도소아병원들사이, 중앙병원들과 도, 시, 군인민병원들사이에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전면적으로 수립되어 지금은 환자를 후송하지 않고 의료봉사를 하고있으며 화상협의회를 통하여 구급환자수술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하여 환자의 정신, 육체적부담이 덜어지게 되었으며 의료일군들의 자질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구성원들은 조국의 병원들에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완전히 수립된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국가적투자를 늘여 훌륭한 치료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조선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그뿐만아닙니다. 조국에서는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문수기능회복원은 물론이고 신천군 새날리진료소, 고산과수농장병원 등 수도와 전국 각지에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가 짧은 기간에 개건되거나 새로 일떠서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기자: 의료일군들속에서는 오늘 자기들의 능력과 자질을 높여 최첨단돌파전의 앞장에서 앞선치료방법들을 도입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봅니다.

김경철: 옥류아동병원에서 수십여명의 선천성심장병을 가진 어린이들을 수술하여 성공한것을 비롯하여 우리 의학계에서 미세외과수술과 같은 첨단수술 등 최근년간에 이룩한 성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는 조국의 인민들보다 더 행복한 인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 * *

부부력기감독

오늘 조국에는 남편과 안해가 한 부문, 한 직종에서 같이 일하면서 행복을 꽃피워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과학자부부, 교육자부부, 예술인부부... 그들속에는 기관차체육단에서 력기감독으로 사업하는 임용수, 김춘희부부도 있다.

그들의 감독년한은 그리 오래지 않다. 하지만 함께 생활해온 많은 사람들은 그들 부부를 가리켜 유능한 력기감독들이라고 말한다.

김춘희는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보유자를 비롯한 재능있는 력기선수들을 키워낸 실력있고 로련한 력기감독이다.

그의 지도를 받은 기관차체육단의 림정심선수는 주체101(2012)년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여자력기경기에서 1위를 쟁취하여 올림픽우승자로 되었다.

려은희선수도 주체101(2012)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와 주체102(2013)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련이어 금메달을 쟁취하였을뿐아니라 주체103(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우승하여 일약 세계패권자로 영예떨치였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김춘희감독은 자기가 거둔 성과의 밑바탕에는 남편 임용수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있다고 한다. 그의 남편인 인민체육인 임용수는 주체91(2002)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1등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에서 순위권에 입선한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다.

매 특기선수들의 육체적능력과 체질, 체형, 심리 등에 따르는 훈련방법의 적용, 그에 따르는 피로회복대책...

풍부한 선수생활년한과 경기경험, 높은 력기기술을 소유하고있는 임용수의 방조는 김춘희감독을 성공으로 떠밀어준 밑천으로 되었다.

력기는 그들 부부에게 있어서 떼어놓을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다. 그만큼 그들은 력기를 사랑하고 모든것을 거기에 복종시켜가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언제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력기선수후비육성에 자기들의 온갖 정열과 지혜를 바치였다. 그들은 서로 높은 경기성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경쟁을 벌리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교수훈련방법과 수단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밤낮도



인민체육인 임용수

록 거듭되는 론쟁과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이 찾은 공통점은 선수후비육성에서 기본은 어릴 때부터 기초교육을 잘 주는 것이라는 것

이었다. 그들 부부는 기초교육을 위한 나이별, 체질별, 심리별, 체형별 등 다양한 교수훈련방법과 수단들을 부단히 받아들여나갔다.

마침내 그들이 품들여 찾아내고 내세운 많은 선수후비들이 여러 경기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세계적인 력기강자로, 국내패권자로 되었다.

림정심, 려은희선수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보유자로 이름떨치고 세계무대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빛내이도록 하는데 기여한 그들의 성과는 단순히 높은 실력만으로 설명할수 없다.

성과가 있을 때마다 인민체육인과 공훈체육인의 영예며 높은 국가수훈도 안겨주고 세계적인 안목을 더욱 넓힐수 있도록 하여준 나라의 고마움을 먼저 생각한 그들이었다.

하기에 그들 부부는 선수들이 맥을 놓고 주저했을 때면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력기는 결코 육체적힘으로만 하는 운동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조국을 떠받들어 온 세상에 빛내이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훈련을 할 때만이 새 기록을 세우고 세계패권을 질수 있다. 이런 사상적각오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올릴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이다.

그들의 모습은 선수들로 하여금 체육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하고 정신력을 분출시키고있다.

이렇듯 자기들의 모든것을 오직 선수후비육성

에 바쳐가는 그들의 불타는 마음은 그대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조국의 금메달이라는 거목들을 자래우고있는것이다.

임용수는 말하였다.

《지금 우리 부부는 누가 더 훌륭한 력기선수들을 키워내는가 하는 경쟁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안해가 앞서고있지만 이제 두고보십시오. 제가 꼭 안해를 따라앞설것입니다.》

그들의 경쟁속에 또 어느 선수가 세계무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게 되겠는지.

글 본사기자 변룡진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공훈체육인 김춘희 (뒤 오른쪽)



상 식

건강에 좋은 무릎껴안기운동

무릎껴안기운동은 누워서 무릎을 두팔로 껴안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간단한 운동이다.

무릎껴안기운동은 누운 상태에서 두손으로 무릎을 껴안아 가슴으로 끌어당기면서 머리를 들고 등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게 할 힘이 없으면 반듯이 누운 상태에서 머리만 들고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놓는것을 거듭한다. 그렇게 하기도 힘들면 베개를 벤 상태에서 할

수도 있다.

무릎껴안기운동의 회수는 한번에 7~8번인데 10초정도의 간격을 두고 2~3번 거듭한다.

무릎껴안기운동회수는 자기의 몸에 맞게 적당히 조절한다.

민족의 향기

봄날에 떠올리는 생각

안녕하십니까.

산에 들에 온갖 꽃이 만발하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처녀들은 시집가고싶은 마음이 생기는가봅니다.

솔직한 말이지만 저도 처녀시절을 마친지 이제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가슴에 꽃을 달고 잔치하는 새각시들을 보면 시샘나게 부러워하는걸 어쩔수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우리는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김송미동포의 남동생 김광성을 만났었습니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김광성은 잡지 《금수강산》 주체 104(2015)년 1호에 실린 평양민속공원을 찾은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성원들의 사진을 펼쳐 보이는것이었습니다.

낮익은 모습들가운데는 결혼식상 앞에서 《신랑》과 맞절을 하는 《신부》인 김송미도 있었습니다.

김광성은 결혼식날 자기도 평양민속공원에 가서 옛날 신랑처럼 바지저고리를 입고 풍성한 고전적인 결혼식상도 받아보며 신부는 가마까지 태워보겠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웃음속에 스쳐보내는 그 한마디 말속에서도 우리는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품을 귀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꼭지를 떼김에 결혼식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혼례는 예로부터 사람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혼례를 치르게 되면 그들을 어른으로 키워냈다는것을 자부하였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레식으로서 혼례식, 혼인잔치, 잔치라고도 부릅니다.

혼인상대를 선택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혼인당사자들이 상대를 선택하는것과 부모들이 상대를 선택하는것입니다.

삼국시기에는 혼인풍습에서 혼인당사자들사이의 교제와 결

합이 비교적 자유로왔는데 그에 대한 적중한 실례는 고구려의 평강공주가 왕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미친한 출신인 온달을 찾아가 함께 살았다는 온달이야기를 들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처녀와 총각이 서로 사랑하면 곧 혼인을 시켰는데 이때 남자집에서는 고기와 술을 보내었을뿐 재물을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후 재물을 받으면 딸을 파는것으로 되기때문에 사회적비난을 받았으며 그것을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덕과 풍습은 백제와 신라에도 있었으며 그것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를 거쳐 계승되어왔습니다.

혼례는 선보기, 약혼, 날발이, 납폐, 결혼식의 절차를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식은 먼저

평양민속공원의 민속촌구를 찾아 결혼식상에 앉아보는 신랑, 신부



바쁜 사람

만수대창작사 도안창작단 단장 홍경일(59살)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가 그를 만나려고 사무실을 세번이나 찾았지만 매번 만날수 없었다.

맹랑한 표정을 짓는 우리의 모습이 보기 딱하였던지 창작단의 녀성창작가가 미안한 기색을 지으며 우리를 단장의 사무실로 이끌었다.

사무실 한쪽벽면에는 창작단에서 지난 시기 창작한 수많은 도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그중에는 동평양대극장과 모란봉극장의 여러 벽등장식도안들과 관람홀형성도안들, 마식령호텔, 문수물놀이장, 류경원, 해당화관마크도안들을 비롯한 여러종의 도안들이 있었다.

정말 우리도 몰랐던, 길거리에서 무심히 보아

창작합평회를 진행한다.



만 왔던 건축물들의 크고 작은 도안들에 홍경일단장을 비롯한 이곳 창작가들의 땀이 스며여있다고 생각하니 한시바삐 그를 만나고싶은 충동이 더 강렬해졌다.

이때 방으로 도안작품을 토의하려고 리종호실장이 들어왔다. 공훈예술가인 그는 우리와 안면이 있었다.

우리의 취지를 안 그는 《허허, 기사선생들의 사업을 내가 보장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동지는 무서운 정열가랍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장식띠를 하나 붙이려고 해도 도안이 선행되어야 하듯이 이 세상에 도안없이 이루어지는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늘 앞장에서 내달린답니다.》라고 서두를 때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체68(1979)년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를 졸업하고 만수대창작사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자국을 내짚자마자 경일은 주체사상탑, 개선문세부형성도안을 맡게 되었다. 대학시절 엉뚱한 착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경일은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의 세부장식형상도안을 맡아 안자 커다란 흥분을 느끼었다. 그러나 제단에는 잘해보려고 며칠밤을 새우면서 도안을 창작하였



홍경일

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탑형성안에 비해볼 때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것이였다. 수십번의 반복도안작업을 하면서 그는 하나의 작은 세부도안도 나라의 명예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열적인 사색과 창작태도로 그는 끝내 자기가 맡은 도안을 완성해내고야말았다.

경일은 그때부터 수시로 제기되는 대상건설들은 물론 공업, 상업 등 여러 부분의 도안들에도 자기의 땀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잠시간만 있으면 소묘를 비롯한 습작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도안들과 함께 조선화, 유화, 소묘 등 미술작품들도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그가 시야를 넓힐수 있도록 로씨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도 방문하도록 해주었다.

홍경일이 주체98(2009)년 공훈예술가칭호를 받고 3년만에 인민예술가칭호를 수여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사는 외삼촌이 그를 찾아왔다고 한다. 미술을 전공한 외삼촌은 매우 놀라와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고 자초지종 물었다고 한다. 경일은 아버지의 등에 업혀 주체50(1961)년 일본에서 귀국한 후 황해북도 봉산군의 어느 한 중학교 미술소조에서 꿈을 키우던 이야기,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에서 창작의 나래를 편 이야기, 대학동창생인 남옥심과 가정을 이루고 둘째아들 진예에게도 미술을 배워준다는 이야기 등을 재미나게 해주었다고 한다.

실장의 이야기가 거의 끝날 때 홍경일단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처음보는 얼굴이었지만 지금껏 그에 대한 이

야기를 들어서인지 우리에게는 그가 구면인듯싶었다.

실장에게서 사연을 알고 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사선생, 조국은 지금 끝없이 비약하고 전진하고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도안창작가들이 사회앞에 지닌 임무가 무겁습니다. 하기에 나는 내 손목에 채워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초침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살고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고난 단장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바쁜 모양이였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것으로 하여 우리는 그와 사진촬영문제만을 약속하고 기꺼이 헤어졌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온 가족이 막내의 미술실기를 도와준다.



신부집에서 신랑잔치를 한 다음 신랑집에서 신부잔치를 하였습니다. 신랑잔치는 신부집에 온 신랑을 맞아들이면서부터 진행하는례식으로서 전안례(신랑이 붉은 보자기에 짙은 기러기를 가지어머니에게 드리는례식. 기러기는 부부의 화목과 믿음, 정절의 상징으로 보았음.), 교배

례, 큰상받기의 차례로 진행하였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맞절한뒤에 조롱박에 술을 부어 나누고 둘이 나란히 앉아 큰상을 받았았습니다.

신부는 친정집을 떠나기에 앞서 부모들에게 큰절을 올리였습니다. 이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동무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갔습니다.

결혼식때 조선옷을 입었는데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칠보단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풍습이였습니다.

오늘 조국에서는 민족적전통

을 살리면서도 시대적미감에 맞게 그리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부합되게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옷차림을 보면 신부는 민족옷인 아름다운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머리와 가슴에는 목란꽃이나 함박꽃송이를 달아 장식하며 신랑은 현대적미감에 맞는

양복을 입습니다.

신랑잔치나 신부잔치 할것없이 가까운 친척, 친우들이 모여 결혼을 축하해주고 간소하게 차린 음식을 나눕니다. 두 잔치를 합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기념하는 사진촬영을 하며 즐겁게 보냅니다.

이렇게 오랜 력사적기간 전

해오는 결혼식풍습에도 조선민족의 성격과 지성수준, 생활관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김광성으로부터 자기의 결혼식에 꼭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받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한쌍의 꽃으로 피어날 그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본사기자 연 옥

자부심을 더 깊이 가지게 하는 고장

얼마전 조국을 방문한 해외 동포들이 동명왕릉을 찾았다.

동명왕릉구역안에 있는 왕릉이며 동명왕릉개건기념비, 제당, 정릉사 등을 돌아보며 동포들은 천년강국을 일떠세운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와 룡산리지구에 동명왕릉이 다시 일떠서게 된 뜻깊은 사연을 들었으며 그 주변도 돌아보았다. 동명왕릉뿐 아니라 그 가까운 곳에 있는 해외동포애국자묘에도 들러보며 동포들은 민족의 유산을 빛내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자욕을 남긴 동포들을 위해 기울이는 조국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에 깊이 새기었다. 참

관을 마치고 차에 오르는데 문득 한 동포가 《저, 여기가 력포구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우리 연길시지부의 리남순 동포가 자기 동생이 력포구역에서 살고있다고 자주 이야기 하던데...》

그리하여 그때로부터 얼마후 우리의 취재길은 력포구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력포구역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안겨오는것이 력포구역학생소년회관이다. 회관에서 울려나오는 노래 《세상에 부림없어라》

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여주었다.

회관앞에서 우리는 마침

해외동포애국자묘를 찾은 동포들

력포구역인민위원회에서 우리를 안내하도록 보내준 일군인 조영호를 만날수 있었다.

동포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다는 우리의 말이 대번에 그의 얼굴을 환하게 해주었다.

그는 《기자선생들은 어떻게 알고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우리 구역의 지명에 대하여 옛날에 대동강의 밀물이 이 일대에 흘러들어오는것을 사람의 힘으로 막아서 포구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력포라고 부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라고 말을 떼며 자기 고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한마디로 쥐어짜면 력포구역은 큰 공장, 기업소들이 있는가 하면 협동농장들이 적지 않아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켜주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는것이였다.

과연 그의 말대로 력포구역은 넓은 벌을 끼고 자리잡고있었고 사람들의 생활은 나날이 꽃펴나고있었다. 은덕원을 비

동명왕릉

롯한 수십개의 편의봉사지와 교육, 문화, 보건시설들이 꾸려져 사람들은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었다.

하루일을 마친 로동자, 농장원들이 은덕원에서 쌓인 피로를 풀기도 하고 조선식건물로 번듯하게 서있는 력포구역종합식당 장진국수집에서 식탁들을 마주하고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였다.

우리와 만난 장진국수집 책임자 김영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업원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쳐 국수집 건물도 보수하고 집기류들도 갱신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국수의 질과 조리사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높였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국수집의 국수며 요리가 맛있다고 즐겨 찾아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민을 위해 더 잘 복무해나가겠습니다.》

인민들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다해가려는 그의 말을 다시금 새겨보며 우리는 취재길을 계속 이어갔다.

건재류들이 쏟아져나오는 평양건재공장이며 선풍기를 비롯한 인민소비품들이 자동차에 실려나가고있는 새날전기공장 그리고 력포은하피복공장, 력포

식료공장...

《여기뿐아니라 평양과수농장, 력포목장, 소삼정남새전문협동농장들에 가보면 우리 구역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을것입니다.》

조영호의 이 말은 우리에게 온 구역땅을 다 돌아보고싶은 욕망을 더욱 불러일으키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고기와 남새, 과일 등을 수도에 공급하는 믿음직한 농업생산기지로 전변된 구역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조영호는 우리에게 자기 구역에 동명왕릉이며 룡산리 소나무숲 그리고 《력포사람》이

라고 부르는 대현동유적 등 민족문화유산이 많기로 소문이 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기자선생들과 함께 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우리 력포땅이 참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 집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고장! 들을수록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긍지와 자부가 넘치는 말이였다. 그 긍지와 자부가 더욱 넘쳐날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다음취재지로 향하였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질 좋은 마감건재를 생산하고있는 평양건재공장





중국 심양시 우흥구 흑산로 8-17호동 3현판 3층 1호 리준경고모 앞

보고싶은 고모에게

안녕하십니까.

밤이 깊어가건만 왜서인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조국에 왔던 고모를 만난지 여러달이 흘렀어도 그것이 어제일처럼 여겨지며 고모가 꿈에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듯 잡지 《금수강산》의 기자선생을 만나게 되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고모부와 태홍형님이랑 모두 건강하여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와 우리 가족도 다 건강하여 맡은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편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집사람이 지난해 출장으로 외국에 갔을 때 태홍형님이랑 잘 도와주어 정말 고마왔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고급중학교 교원으로 후대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모, 저는 얼마전 학생들을 데리고 유서길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았습니다. 고모도 알겠지만 4월은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뜻깊고도 의의깊은 달입니다.

그래서 4월이 오면 수령님을 못 잊어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만경대고향집을 찾곤 합니다.

추녀났은 고향집을 돌아보니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수령님과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생애가 어려와 저도 모르게 눈

뚝이 젖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있는 이 행복이 다 누구의 덕으로 이루어진것입니까. 저희 형제만 보더라도 동철형님은 함흥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의료기구공장 부원으로, 저는 김철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동대원구역 동대원고급중학교 교원으로 일하고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교육과학원에 다니며 학위논문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학교로부터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돈 한푼 내길 하였습니까, 병이 나면 돈을 내고 치료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제 자식들도 나라의 혜택속에 또 그렇게 자라고있습니다. 더우기 조카들인 현경이와 윤경이, 아들 성국이는 학교 예술소조에서 파외시간에는 자기의 취미에 맞게 악기들을 배우며 재능을 꽃피우고있습니다.

고모, 지난해 고모랑 조국방문단성원들이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을 때 떨어진 밤송이를 보며 고모가 고향 정주생각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저는 고모님이 단순히 나서자란 고향만을 그려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때에도 고향산천은 그대로 있었지만 고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향으로 떠돌아다녔습니까.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우리가 나서자란 곳이 참된 삶이 꽃피는 진정한 고향 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진정한 조국, 고향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품, 원수님의 품이라고 노래하고있는것입니다.

고모, 저희들은 조국에서, 고모는 해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더 많은 일을 하자는것을 약속합니다. 올해에도 조국에 꼭 다시 오십시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신동 59인민반 승광철조카 올림



인상기

뜨거운 지성이 수놓아진 축전장

지난해에 태양절을 맞으며 고국을 방문한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곳은 김일성화축전장이었다.

축전장에는 아름답게 피운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높은 조형예술적수준에서 전시되어있었다.

뿐만아니라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만복화, 진달래를 비롯한 꽃들로 황홀한 꽃바다를 펼쳐놓고있었다.

김일성화축전장에 펼쳐진 황홀경은 나뿐이 아닌 우리 해외동포들을 자연의 꽃의 의미를 초월하는 숭엄하고 뜨거운 세계에도 이끌어갔다.

더우기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꽃을 아름답게 피워 그곳에 전시한 고국인민들만이 아닌 해외동포들의 모습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축전장으

로 끝없이 달리는 마음을 안고 태양의 꽃에 지성을 바친 재일조선인 총련합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등의 일군들과 동포들...

그들의 지성이 깃든 아름다운 꽃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해외동포들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아들딸들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한식술이라는것을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참으로 김일성화축전장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히 믿고 따르는 온 겨레의 뜨거운 지성이 수놓아진 아름답고 훌륭한 축전장이었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예술단 배우 남 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나는 오래간만에 조국을 다시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나는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조국의 모습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볼수록 모든것이 놀랍기만 하였다. 특히 평양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다. 가는 곳마다에 인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룡라곱등어관과 인민극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서있고 아이들을 위한 공원도 훌륭히 꾸려져있었다. 주체사상탑을 참관하는 과정에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서 평양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 모습이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드넓은 김일성광장도 훌륭했고 특색있게 높이 일떠선 창천거리의 초고층살림집들도 멋이 있었다. 조선식합각지붕을 엮은 옥류관은 그 건물의 모양에 하도 마음이 끌리어 그곳을 찾아 소문난 평양랭면까지 먹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조국에서는 1년, 지어 단 몇개월사이에도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우

고있다.

나는 그 비결을 조국인민들의 일심단결에서 찾고 싶다. 조국인민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비록 적대세력들이 악랄하게 방해책동을 하고있어도 그들은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이러한 모습은 나에게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를 한껏 가지게 한다.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원복순





조국해방 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았다.



다. 선조들의 민족옷풍습과 결혼식과 환갑을 비롯한 관혼상제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환갑상》앞에 앉아 한장한장 사진을 찍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에 넘친 웃음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집에 돌아가령감한테 보여주겠다는 동포며 자식들에게 보여줄 사진이니 잘 찍어달라는 동포, 친지들에게 평양민속공원에 대한 사랑을 하겠다는 동포들, 그들 모두는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주는 조국이 있어 우리는 모두 여기에 와서 〈환갑상〉앞에도 앉아보았고 마음껏 웃으며 기쁨을 누릴수 있었다. 아무리 돌아보아야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다. 정말 좋은 내 조국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평양민속공원의 민속촌구를 돌아보았다.



고국방문

《정말 좋은 내 조국》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길시3중모범지구 조국방문단 -

지난해 가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길시3중모범지구 대표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만경대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민속공원 등 동포들은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대표단의 대부분동포들이 고령의 나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가셔질줄 몰랐다.

조국에 오니 그렇게도 애타게 먹이던 다리와 허리아픔도 다 없어지고 혈압이 높아 늘 먹던 약도 먹지 않는다는 그들의 말은 정녕 무심히 스쳐지나 보낼수 없었다.

《우리 할머니들이 조국에 오니 아프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인데도 있겠지만 아마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기쁨이 모든 아픔을 잊게 한것 같습니다.》라는 리혜영지부장의 말이며 《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니 하루밤 자고나면 십년씩 젊어지는것만 같소.》라는 문순옥동포의 말은 조국을 방문한 연길동포들의 마음을 읽게 하였다.

동포들의 웃음은 평양민속공원참관때에 절정을 이루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들은 공원의 여러곳과 함께 민속촌구에 있는 민족옷전시장도 돌아보았



주체적힘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할 조국통일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반세기이상이나 계속되고있는 민족의 분렬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 온 겨레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그 불행과 고통은 수십년세월 쌓이고 쌓여 바다를 이루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은 기어이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야 한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다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조국의 분렬은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초래된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세력의 강권에 의하여 초래되었다. 나라의 통일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외세의 간섭과 방해때문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을 우리 민족을 지배하려는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민족의 힘으로 이룩되어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나라의 분렬로 고통을 받고있는 직접적당사자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을 해야 할 담당자도 우리 민족이며 통일된 강토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주인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마땅히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의사와 지향에 맞게 실현할수 있다. 이것을 담보해주고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해주는것이 바로 주체적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고수해야 하는것은 여기에 민족의 본성적요구가 반영되어있는 것과 관련된다.

원래 민족은 피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이러한 민족은 그 어떤 외세에도 엮매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것을 요구한다. 민족의 이 본성적요구는 남에게 의존해서는 결코 실현할수 없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전횡과 약육강식의 론리가 흐르는 오늘의 지구상에서 민을것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자기 민족뿐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고수해야 하는것은 여기에 북남관계개선과 민족대단결의 담보가 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6. 15 통일시대를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 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겨레앞에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해나가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반세기이상 얼어붙었던 반목과 대결의 장벽이 허물어져가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풍이 휘몰아쳤다. 북남관계와 조국통

일운동에서는 그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고 사변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그리고 북과 남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예술인, 체육인 등 각계각층 동포들이 서로 오가며 동포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주체91(2002)년에만도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통일행사들이 진행되고 북남철도, 도로련결착공식과 그 공사의 진척, 북남통일축구경기와 북남태권도시범단교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 그리고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남선수들의 공동입장과 공동 응원 등 격동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이 모든것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주체적힘으로 전진하는 자주통일운동을 가로막아보려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의연히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것이 주체적립장,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리과대학 교원 정경복



김명주동포 (가운데)

연분홍빛갈의 꽃잎을 펼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만복화,

아름답게 피어난 만복화를 바라볼 때면 하나의 꽃에도 애국의 마음을 실으며 뜨거운 지성을 바쳐온 한 해외동포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온다.

네델란드에서 살고있는 김명주동포는 원래 화초전문가가 아니었다.

그가 새 품종의 만복화를 꽃피우는 길에 나서게 된것은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가슴벅찬 현실에 깊이 감동되었기때문이었다.

그는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매혹과 흠모심을 안고 사랑하는 고국에 자기의 마음이 깃든 한송이 꽃이라도 피워드리고싶었다.

더우기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있던 시기였지만 강성부흥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나라의 꽃자원을 하나하나 늘여 조국땅을 백화만발한 락원으로 가꾸어가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대한 이야기는 김명주동포로 하여금 고국으로 향한 비행기에 몸을 신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때 조국의 원예학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아름다운 새 품종의 꽃을 육종해내고있었다. 김명주동포는 스스로 평양화초연구소의 한 성원이 되었다.

그는 주체95(2006)년 10월 국제화초연구센터를 내올것을 발기하고 평양에서 1차회의를 가졌으며 2008년에는 국제화초연구센터 리사회를 조직하고 리사장사업을 맡았다.

그는 리사회성원들 모두가 세계각국에서 고국의 화초연구사업을 도와 끊임없이 활동하도록 하였다.

김명주동포는 손에서 원예도서들을 놓지 않고

만복화에 깃든 지성

꽃재배기술을 하나하나 습득하였으며 고국에 체류하는 나날에도 원예학자들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그리고 출발재로 될 꽃뿌리와 종자, 꽃모를 구입하기 위해 적지 않은 나라의 화초원들을 찾기도 하고 화초연구에 절실히 필요한 최첨단수준의 연구설비와 실험기구들도 구입하여 새 품종꽃육종사업을 힘껏 떠밀었다.

그러던 2011년 3월이었다.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새 품종꽃육종연구사업이 진행되고있는 심비디움온실에도 들리시어 이제 꽃이 피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 소식을 멀리 네델란드에서 전해들은 그는 환희로 가슴을 들먹이며 그날이 어서빨리 왔으면 하고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 그에게 그해 7월 새 품종꽃육종연구사업에서 공로가 큰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와 함께 명예박사칭호가 수여되었다.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가꿔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큰 발걸음에 자기의 작은 걸음도 따라세울 그의 일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만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멈추었다는 비보에 접하게 되었다. 애도의 100일을 이국에서 보내고 고국을 찾은 김명주동포는 10년만에 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 새로 육종한 꽃앞에 섰다.

《위대한 장군님께 이 꽃을 보여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김명주동포의 마음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소원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대원수님께서 이 세상 만복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던 장군님의 념원을 담아 꽃의 이름을 만복화로 부르도록 하시고 꽃이 정말 곱다는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사랑하는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고 천만가지 아름다운 꽃씨앗을 온 나라에 뿌려주신 장군님의 애국의 높은 뜻이 이역에 사는 한 동포의 심장에도 애국의 꽃을 피웠던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고구려음악가 왕산악

우리 나라 중세민족음악발전 에 커다란 공헌을 한 3대악성중 에는 왕산악도 있다.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사람인 왕산악은 4세기 전반기에 민족악기 거문고를 창안제작하고 많은 악곡들을 창작하여 거문고음악의 시초를 열어 놓은 재능있는 음악가이다. 고국원왕(331년-371년)시기의 사람이었던 왕산악은 제2의 재상으로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남다른 음악적재능을 발휘하여 민족음악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강력한 국력과 발전된 문화로 고구려의 대외적권위는 날로 높아지고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던 4세기 전반기 진나라로부터 현악기 7현금(금)이 류입되었지만 그 연주법을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나라에서는 그것을 탈수 있는 사람

에게 큰상을 주겠다고 공포하였다. 이때 왕산악은 스스로 7현금의 연주법을 알아내고 그 악기의 약점도 간파하였으며 새로운 악기를 구상하였다.

그는 4줄 또는 6줄로 된 장방형의 울림통에 새롭게 패를 첨가함으로써 연주에 보다 편리하면서도 인민들이 정서생활에 많이 리용할수 있는 새로운 민족현악기 거문고를 창안제작하였다. 그는 100여곡의 거문고곡들도 창작하여 훌륭히 연주하였는데 그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음악소리를 듣고 난데없이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하여 악기이름을 현학금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후에는 그저 현금이라고 전해지게 되었다.

거문고의 웅글지도도 장쾌한 음색과 활달하면서도 시원스러운 주법들은 고구려사람들

의 호탕하고 락천적인 정서와 기질에 잘 맞았고 민족적인 색채의 음악형상에 편리하여 삽시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고구려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애용되었다. 고구려벽화무덤들인 태성리1호무덤(4세기 전반기)과 고국원왕릉(4세기 중엽)의 안칸, 집안(통구)12호무덤(4세기 후반기), 춤무덤(4세기말~5세기초), 장천1호무덤(5세기 중엽), 집안다섯무덤의 4호무덤, 5호무덤(6세기) 등에 묘사된 거문고연주도는 악기의 생활력과 예술적감화력을 뚜렷이 실증해 준다. 고구려의 정신과 기백이 어려있고 우수하고 훌륭한 민족음악형상에 적합한 거문고는 중세기 오랜 기간 대표적인 민족악기로 우리 인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

사회과학원 박사 김선영

조선속담 (고집)

- 고집이 세기가 하늘소 뒤발굽같다
하늘소 뒤발굽은 매우 굳다는데서 어떤 사정이나 에누리도 없이 고집이 매우 센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 길로 가라니까 뚝로 간다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대주어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옳다가며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 닭의 고집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을 통으로 이르는 말.
- 담백하고 말하는셈
도무지 리해할줄 모르거나 고집불통인 사람과 맞서 말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뱃을 문이라고 내민다

- 리치에 맞지 않는 사실도 자기의 고집을 세우기 위하여 억지로 내민다는것을 이르는 말.
- 뚝뚝이 꿈의 발바닥같다
버티는 힘이나 고집이 매우 센것을 비겨이르는 말.
- 질기기는 소힘줄같다
고집이 몹시 센것을 비겨이르는 말.
- 한집에 감투쟁이 셋이면 변이 난다
무슨 일에 나서서 제 의견만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안됨을 비겨이르는 말.
- 딱딱하기는 삼년묵은 물박달나무같다
고집이 몹시 센 사람을 비겨이르는 말.

유모아

들어갈수 없는 제 집

어느날 교수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문앞에 와서야 열쇠를 못 가져왔다는것을 알았다. 하는수없이 힘껏 문을 두드렸다. 한참만에야 안해가 일어나 나왔다.

야밤삼경이라 안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안하지만 선생님, 교수선생이 집에 안계셔요.》라고 문을 열지 않은채 말했다.

그러자 교수도 습관적으로 《그럼 좋습니다. 래일 다시 오지요!》라고 말했다.

백제의 정치구조

백제봉건국가(B. C. 1세기 말엽-660년)는 고구려, 신라, 가야와 함께 우리 나라 주요 봉건국가들중의 하나이다.

B. C. 3세기 중엽에 고구려의 한 갈래가 남하하여 형성된 백제소국은 점차 봉건화과정의 촉진되는데 따라 봉건국가로 성립되었으며 그 과정에 자기의 독자적인 정치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중세시기 모든 나라들과 같이 백제에서도 최고통치자는 국왕이었다.

국왕은 나라안의 모든 권력과 토지를 소유한 절대적군주였다.

백제의 국왕은 자기밑에 제후들을 거느리고있었으며 무제한한 권력과 전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백제의 국왕은 자신이 직접 또는 상좌평과 같은 관리들을 통하여 대귀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정권유지를 보장하였다.

처음 백제에는 국왕아래 좌보, 우보가 있어 국왕을 도와 나라를 통치하였으며 그후 3세기 중엽(고이왕통치시기)이후 중앙통치기구가 전반적으로 정비강화되었다.

내신좌평, 내두좌평, 내법좌평, 위사좌평, 조정좌평, 병판좌평 등 6좌평은 중앙정부의 최고관리로서 각각 일정한 직무를 담당수행하였다.

또한 6좌평우에는 상좌평이라는 최고관리를 임명하여 국왕다음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16등급의 벼슬등급을 나누어 봉건

관리들의 등급을 제정하였다.

이외에도 중앙관청으로 내관(11개)과 외관(10개)이 있어 국가정치를 운영하였다.

6좌평을 비롯한 21개의 중앙관청들은 모두가 다 왕의 즉속들이나 대귀족들로 그 장관들을 임명하고 국왕의 중앙집권적체제를 옹호하고 인민들을 착취하는 기구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따라서 백제의 통치구조는 3세기 중엽이후 국왕아래에 상좌평이 6좌평을 장악통제하고 6좌평이 21개의 중앙관청을 맡아보았다고 볼수 있다.

다음 백제의 통치제도를 본다면 대체로 수도는 5부로, 전국은 5방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백제의 5부와 5방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행정조직기구인것이 아니라 군사적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치단위로서 그것은 수도를 5개의 부로 나누고 부의 아래에는 각각 5개씩의 향을 설치한것이였다.

방에는 10개정도의 군(고을)이 소속되어있었다. 매 방의 소재지에는 방의 거점으로 될수 있는 성이 있었고 거기에 700~1 200명의 군사를 배치하였다.

군에는 덕술의 벼슬등급(제4등급)을 가진 장관 3명이 임명되어있었다.

군의 장관은 일정한 수의 군사를 지휘하고 관하 고을을 통솔하며 또 아래단위의 작은 고을들을 통치하기도 하는 큰 고을의 군사행정장관이였다.

백제는 고구려의 한 갈래가 남하하여 세워진 나라인것으로 하여 그 통치구조는 고구려의

통치구조와 같은것이 많았다.

즉 국왕밑에 좌보와 우보가 있고 수도를 5부로 나누어 통치한것들은 고구려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백제에서는 법률제도도 상당히 짜여있었다.

백제법에는 나라를 배반하고 전투에서 물러선자는 참형에 처한다는 형법이 있었다. 봉건관리들의 퇴물행위나 탐오현상에 대한 법적통제가 실시되었으나 이것은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반항을 누착히고 봉건국가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는 기만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이외에도 《살인자는 노비 3명을 내고 속죄한다.》는 법조항이 있었다. 이것은 노비들을 많이 소유한 특권적귀족들이 속죄만 하면 비록 살인죄라도 형벌을 면할수 있는것으로 되며 백제의 법은 인민들에게는 불리하게, 봉건관료들에게는 유리하게 제정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백제의 통치구조에는 동족의 나라 고구려와 비슷한점이 많았으나 자기의 고유한 특징도 가지고있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기구가 내관, 외관으로 갈라져있었으며 6좌평에 의하여 기본중앙관청들이 분할되어 관리운영되었다는것이다.

백제는 고구려의 발전된 정치제도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독특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였으며 삼국시기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차영성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7)

- 구월산지구 -

이번호에서는 구월산관광지구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월산관광지구는 조선의 중서부에 있는 구월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구입니다.

구월산은 은률군과 안악군, 삼천군, 은천군 경계지역에 솟아있습니다.

특이한 계곡미, 산악미를 자랑하는 구월산은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로서 예로부터 9월의 단풍이 류별나게 아름답다는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궁골산, 증산, 아사달산, 삼위산 등으로 불리는 구월산의 해발높이는 954m(사황봉)이며 총면적은 110km²입니다.

구월산은 주봉인 사황봉을 비롯하여 오봉(859m), 주계봉(823m), 삼봉(615m), 아사봉(688m) 등 기묘하게 생긴 99개의 크고작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있다고 예로부터 전해지고있

구월산의 서리꽃



습니다.

구월산의 산성골, 오봉골, 운계골, 화장골, 원명골을 비롯한 깊은 골짜기들에는 구슬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려 물안개에 칠색무지개 령롱한 룡연폭포, 삼형제폭포를 비롯한 폭포와 담소들이 있습니다.

구월산의 골짜기들에서는 한이천, 한일천, 남대천, 구월천, 산촌천 등의 하천들이 흐르며 산허리에는 7년동안 왕가물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다는 이름난 석담도 있습니다.

구월산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인민의 휴양지, 관광지로 훌륭히 꾸러졌습니다. 구월산에는 100여km의 탐승도로와 수십개의 정각, 부감대들, 등산길들이 있습니다.

구월산에는 산성혁명사적지도 있습니다. 산성혁명사적지는 구월산성중심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10(1921)년 11월 이곳에 오시여 이 지구 반일조직대표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오직 무장투쟁으로서만 반일투쟁에서 승리하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하신 력사

적인 곳입니다.

구월산관광지구는 절승경계 들뿐아니라 구월산성, 삼성사, 월정사, 안악3호무덤을 비롯한 많은 력사유적들도 있습니다.

구월산성은 고구려시기 외래 침략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인대 둘레길이가 5. 23km이며 높이는 3. 5~5. 2m입니다.

성을 보위하는데 리용된 무기고, 식량창고, 병영 등의 터가 있으며 자기를 구워내던 가마터도 있습니다.

월정사는 구월산 아사봉을 배경으로 단풍골에 자리잡고있는 사찰입니다. 지금의것은 조선봉건왕조 초기에 다시 지은것입니다.

월정사란 월정대사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월정사는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만세루, 명부전, 수월당과 기타 부속건물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월정사는 건축형식이 독특할뿐아니라 주변경치 또한 매우 아름다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월산 삼성사는 팔담골입구에서 2km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구월산에는 고조선의 건국시조 단군과 관련한 력사유적들과 명소들이 많은데 삼성사는 단군을 제사지내기 위하여 고려 말기에 세운 사찰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할아버지인 환인과 아버지인 환웅의 제사도 함께 지냈다고 하여 삼성이라고 합니다. 동, 서, 남쪽에 3채의 주요건물과 보조건물이 있습니다.

구월산지구에는 안악3호무덤도 있습니다. 안악3호무덤은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자리잡고있는 고구려 고국원왕(331년-371년)의 무덤입니다.

무덤은 4세기 중엽에 건설된 것으로서 건축술이 섬세하고 규모가 크며 특별히 화려하고 내용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고구려 벽화무덤가운데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화유산으로 되고있습니다.

벽화를 통하여 고구려의 력사와 건축, 회화, 음악, 춤, 무술, 음식차리기 등을 알수 있습니다.

안악3호무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동분대의 봄



단풍골삼형제소

이밖에도 구월산지구에는 산삼, 단너삼, 당귀, 오미자, 천남성, 족두리풀 등 약초들이 많으며 노루, 샫, 꿩, 꿩꼬리, 두견새, 부엉이와 같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구월산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등산, 참관을 하는 훌륭한 관광지로서 평양에서부터 약 100km 떨어져있습니다.

그럼 다음호를 기다려주십시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작품 《잃어진 고려불화》를 놓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근 한달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의 만수대창작사 미술가인 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 김승희의 개인미술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당시 전시된 작품들 가운데는 《잃어진 고려불화》라는 제목을 단 그림이 있었다. 작품은 관음보살이 중생의 소원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장면을 담고있다. 바위위에 걸터앉은 보살과 손을 모으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있는 중생, 주변의 붉은 룩색계통의 산호와 구슬알들 등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1310년에 고려왕실의 주문으로 여러명의 궁중화가들이 그렸던 불화(불교에서 예배의 대상 혹은 우상물로 쓰기 위하여 그린 그림)의 축소판이었다. 원작(크기 419.5cm×254.2cm)은 명주착색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금니로 채색되었다.

현재 이 원화가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에 있는 경신사에 있다. 그리고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등록되어있다. 이를 두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풀지 못하고있다.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아시아 뉴스센터에서 2002년에 출판한 도서 《고려불화》 43페이지에는 이렇게 써여져있다.

《이 그림은 일본에 전해진 양류관음상(수월관음도) 가운데

서도 최대의 화폭을 자랑하며 화풍도 최량의것으로 생각되고 고려회화사를 이야기할 때 첫째로 꼽히는 걸작품이다.》

도서는 여기에 이런 글을 덧붙였다.

가마쿠라시대(12세기말-1333년)의 력사기록에는 일본사람들이 수십척의 병선을 거느리고 고려로 건너가 물건들을 절취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경신사의 주인이 고려로 넘어가 야간 토벌을 하여 많은 보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

우의 자료는 고려불화가 일본에 의해 도난당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의 문화재들을 수없이 약탈하였다. 이 행위는 일제가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국권을 통채로 빼앗은 다음부터 보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감행되었다. 총 15권에 달하는 《조선고적도보》까지 작성발표한 일제는 조선민족이 5천년세월 창조하고 보존하여온 지상의 유산들은 물론 200여기의 력대 조선왕릉들과 1만 1천여기의 지하의 고분들을 파괴치면서 수많은 문화재들을 약탈해가고 가져갈수 없는것은 파괴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의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 주임을 하였던 후지다 료사꾸는 《…고분을 파괴하

고 그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서 파는것과 같은 현상은 세계가 넓다 해도 조선에서 유일한 례에 속한다.》라고 고백하였다.

지금 일본정부는 과거 일제가 약탈한 문화유물들을 저들의 《국보》로 등록해놓고있다. 도쿄국립박물관에 수만점에 달하는 조선의 문화유물들이 비치되어있는것을 비롯하여 일본 각지의 박물관, 미술관, 대학, 사찰, 미술학교, 기관, 개인들의 수중에 금속공예품, 불상, 초물, 그림, 도서 등 다종다양한 문화유물들이 많다. 1983년 일본에서 출판한 도서 《기증오쿠라코렉손목록》에 의하면 고려자기만 하여도 일본 전국각지에 약 3~4만점이 있다고 한다.

그 가격은 품종의 다양성과 높은 고고학적가치로 하여 일률적으로 다 환산하기 어려운바 임진조국전쟁시기(1592년-1598년) 일본에서는 고려말기의 차종지(공기) 1개가 쌀 1만석에 해당하는 값으로 거래되었다고 한다.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고고학자로 가장하였던 일본의 가루베라는자는 1963년 자국의 한 기자와의 회견에서 자기는 《백제고분 2 000기를 도굴하였으며 그것을 장사군에게 평가시켜보았더니 3억 수천만푼이라고 하였다.》라고 실토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에 있

수 기

흑백을 전도하지 말라

지난해 12월 남조선당국자들은 반공화국적대 세력들과 공모결탁하여 《북조선인권상황청문회》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인간쓰레기들인 《탈북자》들을 내세워 《북조선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말살이 진행되고있다.》느니, 《장애인말살정책》을 가리우기 위해 장애인올림픽 경기대회 등에 선수단을 파견한다느니 하고 그들이 내돌리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용납 못할 훼방이며 나와 같은 장애인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공화국처럼 인권보장이 철저히 인민에 대한 존중, 인민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고있고 그가 누구이든 차별없이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품이 있어 장애인 나도 참다운 삶을 누려가고있다.

지금도 생각하면 청춘시절에 뜻밖의 사고로 내가 다리 하나를 잃었을 때가 잊혀지지 않는다. 젊음이 약동하는 시절이어서 그때 나의 마음속 아픔은 컸다. 하지만 당시 집단과 동지들은 물론하고 이웃들 지어는 낮모를 사람들까지 나를 찾아와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 뿐만아니라 수술에 피가 요구될 때에는 아낌없이 자기들의 피를 나에게 넣어주었으며 귀한 약재와 보약들을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의족을 하고 걸게 되었을 때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에서 일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그 사랑속에 지금 나는 대지를 활보하며 장애인보호사업과 함께 국제토론회, 강습에 대표로 참가하고있으며 런던 장애인올림픽경기대회때에는 력기선수로 출전하기도 하였다.

흘러간 나의 삶을 생각할수록 이 좋은 사회주의제도를 허물려는자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불길처럼 타오름을 금할수 없다.

나는 《탈북자》들이 그래도 한조각의 량심

이 있다면 인간의 리성을 가지고 대답해보라고 이렇게 따지고 단죄한다.

《너희들도 공화국의 품속에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어린이보육교양제, 무료교육,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참으로 복속에서 복을 모르고 자라났다. 그래, 공화국이 언제 한번 너희들에게 돈을 받고 공부를 시키고 치료를 해준적이 있었으며 또 장애인들을 구속, 차별하는것을 본적이라도 있었는가. 있을수도, 있어본적도 없는 일을 너희들은 더러운 잔명을 부지할 부스럭 돈이나 얻어먹느라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의 각본에 맞추어 거짓증언을 하는 망동을 부렸으니 인간쓰레기라 하지 않을수 없다.》

가관은 물에 빠진놈 지푸래기라도 잡는다고 쓰레기들을 붙들고 《인권》소동으로 구름잡아 하늘을 날겠다는 허황한 개꿈을 꾸는 상전과 주구의 가련한 몰골이다. 한마디 더 한다면 그런 개꿈은 꾸지부터 말아야 할것이며 불모지로 악명높은 남조선과 미국의 인권문제부터 대수술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비렬한 《인권》나발을 불어댄다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천하의 못된짓은 하늘이 알고 천벌을 내린다고 하였다.

나는 비록 장애인이지만 복수의 그날이 온다면 손에 총을 잡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죽탕치는 싸움에 떨쳐나설것이며 극악한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것이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원 김창주



는 고려불화를 비롯하여 일본이 선에서 도적질하였거나 약탈해 모든것을 반환하고 배상하여야 중요문화재라고 표방하는 조선 간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다. 의 모든 문화재들은 일본이 조 일본은 조선에서 약탈해간 본사기자 홍정혁

짓밟히는 꿈, 알달한 미래

자라나는 아이들마다 소중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꿈을 꾸다고 하여 그것이 어느 사회에서나 저절로 꽃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수십만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고 있으며 적지 않은 경우 이것은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보건후생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몇년전 이 나라에서 69만 5 000여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았으며 그중 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죽은 어린이의 약 80%는 4살도 안된 어린이들이었다고 한다. 총체적으로 약 590만명의 미성년들에게 폭행이 가해졌을 수 있다는 약 330만건의 신고가 미국의 후원기관들에 제기되었다.

주로 남부주를 비롯한 19개 주의 학교들에서는 법에 따라 아직까지 육체적 처벌이 승인되고 있다. 미교육성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2006년에 22만 3 000명의 학생들에게 육체적 고통이 가해졌다.

실례로 캔톤시의 로텐버그교육센터라는 아동 학교에서는 《협오를 자아내는 료법》(전기충격을 가하는 외에 먹물것을 빼앗고 때리며 암모니아수를 강제로 들이키게 하는 방법 등을 포함.)이라는 피상한 교육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학생

들은 하루 24시간동안 특수한 전기충격발진기를 지니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은 위생병들에 의해 원격조종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미국에서는 해마다 고등학교학생 120여만명이 학비때문에 중퇴하고있으며 대학생의 60%가 학비걱정에 시달리고있다.

일본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는 신문배달하는 학생수가 신문배달원총수의 40%에 달한다.

새 세대들의 배움의 권리를 짓밟고 우롱하는 것은 비단 학비만이 아니다.

언제인가 한 외신은 《미국에서는 고양이, 개〈교양원〉들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후대교육을 책임진 교원들에 대한 요구보다 훨씬 더 엄하다. 이것은 〈문명국가〉의 수치이다.》라고 야유한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의 한 부류의 학교교원들에 대한 사건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만도 수천명의 교원들이 성적인 비행혐의로 교원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의 80%가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런 《교원》, 폭력배들의 손탁에서 배우며 자라난 학생들의 앞날의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불보듯 뻔하다.

자본주의사회의 가혹한 현실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도 꿈도 무참히 유린당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도덕적부패와 범죄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져들고있다.

미국의 청소년들속에서 총기류범죄는 하나의 류행병처럼 만연하고있다. 이 나라의 ABC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신문은 청소년들속에서 꼬리를 물고 감행되고있는 총기류범죄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개별적인물의 소행이라기보다 사회에 존재하고있는 광범위한 난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는것이라고 밝혔다.

실태는 영국도 다를바 없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0살부터 15살까지의 청소년들에 의해 감행된 범죄건수가 85만 9 000건에 달하고있다.

일본에서는 21살난 청년이 녀중학생을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 나라에서는 비관과 절망에 빠져 자살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현실은 세 세대들을 부패타락과 범죄의 길, 자살의 길로 떠미는 자본주의사회야말로 스스로 미래를 짓밟는 앞날이 없는 사회라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본사기자

오늘도 그날의 함성은 살아있다

남조선에서 4. 19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55년이 되어온다.

세월은 흘렀어도 파쇼독재의 총칼에 용감히 맞서싸운 의로운 봉기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겨레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4. 19인민봉기는 외세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쇼통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었다. 미국을 등에 업고 악명높은 경찰파쇼통치로 권력을 유지하던 이승만역도는 1960년 범죄적인 3. 15부정선거를 강행하는것으로 장기집권야망을 드러냈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의 인민들은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섰다. 삼시에 항거의 불길은 남조선의 전지역을 휩쓸었다. 당황망조한 이승만역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야수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그러나 항쟁용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이승만은 물러가라!》, 《경찰〈정권〉 라도하라!》, 《미국은 간섭말라!》, 《통일만이 살길이다!》 등의 구호를 내걸고 결사항전을 벌려 마침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야말았다.

이승만독재 《정권》의 타도는 남조선인민들이 반미반파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승리였고 미제의 식민지 지배를 밀뿌리채 뒤흔들어놓은 력사적장거였다.

대중적인 봉기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와 그 주구들의 파쇼독재통치를 용납치 않을 견결한 의지를 과시하였으며 죽음도 두려움없이 완강하게 투쟁한다면 아무리 포악한 독재세력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4. 19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항쟁용사들의 피타는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4. 19인민봉기에 의해 이승만역도가 쫓겨나자 군사쿠데타로 군부강패를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고 또다시 인민들의 념원을 무참히 짓밟아버리었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정권》은 여러차례 교체되었지만 외세의존과 파쇼독재, 반통일의 범죄적력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

항의시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미국경찰



미국에서 경찰의 흑인청년살해사건에 항의하여 시위



《소나무 밑에 앉아》

리재관(자; 원강, 호; 소당, 1783년-1837년)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빈곤한 살림속에서 그림솜씨를 닦아 자기 그림을 팔아서 생활을 유지하였으며 그 나날에 점차 산수, 인물을 비롯하여 초목과 새, 벌레, 물고기 등을 모두 잘 그리게 되었다. 특히 화상을 잘 그렸는데 왕의 화상을 그리는 일도 맡아하였으며 《약산화》와 같은 작품들을 남기었다. 뛰어난 솜씨로 하여 도화서 화원으로 되었고 감목벼슬을 하였으며 첨사로 등용되었으나 그것을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와 지냈다.

《소나무 밑에 앉아》는 리재관의 대표적인 작품들중 하나이다.

외로이 선 한그루의 키 큰 소나무아래 늙은 선비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것이다. 시정에 잠긴듯 한 표정의 선비와 깨끗한 기상이 풍기는 소나무를 생동하게 그린 솜씨가 나무랄데없이 세련되어있다.



때 국역적 리승만의 《동상》을 끌고다니며 기세를 올리는 4. 19인민봉기자들

다. 그것은 미국의 로골적인 간섭과 배후조종으로 산생되는 것이었다.

지금도 미국은 끊임없는 핵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있으며 남조선피뢰들을 사족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대화와 평화를 위한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도전하여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책동,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의 침략적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의 기운은 날로 고조되고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미국의 핵항공모함기지로 전변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미, 반전투쟁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연습을 반대하여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쟁책동 분쇄하고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부산민중련대는 미국의 핵공격잠수함의 부산입항을 반대하여 항의투쟁을 벌리었다. 오랜 시간 항의투쟁을 벌리던 그들은 집회를 가지고 미군을 쫓아낼 때까지 무기한 비상행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행위가 꼬리를 물고 감행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시민사회단체 성원들도 미군범죄근절의 방도는 미군철수에 있다고 하면서 온갖 악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실지 체험을 통해 깨닫고 침략자들의 전횡을 더는 용납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의 분출이다. 이와 함께 미국을 등에 업고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근로대중의 생존권마저 말살하고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락시켰을뿐아니라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으로 공화국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북침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는 남조선피뢰들의 파썸독재통치를 단호히 짓부셔버릴 의지의 분출이기도 하다.

오늘날 남조선의 정치정세는 50여년전의 4. 19의 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4. 19의 영웅한 투쟁정신을 되살려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적항쟁에 떨쳐나섬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미국에 추종하는 괴뢰당국에 항의하는 남조선인민들





칠성문거리의 봄 본사기자 임정국

거리에 꽃들이 만발하다. 뜻깊은 4월의 화창한 봄날,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업적을 전하는 개선문도 그 꽃속에 묻혀 솟아있는듯 싶어 환희의 마음 뜨거움에 젖어든다.